

표지이야기

이실제 작. 공존-블루, 2016, 100×100cm, Cotton paper-Archive pigment print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졸업, 조선대학교 대학원 응용미술 졸업,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겸임교수, 백제예술대-순천대 학교-동신대학교 출강, 주요전시 '갤러리 도'(2017, 전남 화순), '담빛 갤러리'(2016, 전남 담양), 무등 갤러리 'fashion + photography 콜라보레이션 기획초대전'(2015), '2015 대구 국제 아트페어' 퍼즈 갤러리(2015, 대구), '대구 국제 아트페어' 퍼즈 갤러리(2014, 대구), '광주 국제 아트페어' MOA 갤러리(2014, 광주), '타이페이 2013 국제 아트페어' 츠바키 갤러리(2013, 대만) 등, 광양시 도시문화재생사업 감독 '549음성프로젝트'(2018), '화순실치미술제' 총감독(2017).



2	‘창’을 열며 ‘소확행(小確幸)’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가 되다	안태기
3	‘새정부 문화정책과 민선 7기 문화정책 제언’ 새문화 정책으로서 문화비전 2030이 담고 있는 정책 구상안과 짧은 소견 ‘6·13 지방선거문화정책연대’ 현장에서 바라본 지방정부 문화정책 혁신	전교필 윤준혁 임인자
14	문화인 탐구생활 어쩌다 소설가, 서용좌	박신영
16	기획연재 그림자도 쉬어가는 곳 ‘식영장’	임준성
19	전시회 스케치 김인숙 첫 번째 사진전시회	김정희
21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불로동 다리 아래 광주천이 흐르고	편집부
24	문화현장 세계청년축전 개최의 의미와 역할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場, 광주시민총회를 열다!	이지훈 박필순
28	문화청년그룹 광주의 오월을 걷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합니다	김꽃비
30	공연 속으로 인간 욕망의 과거, 현재, 미래	김정희
32	책을 말하다 별서원림, 소쇄원을 읽는 현재적 시선	김정희
34	문화특특 문화, 생각만 해도 설레는 말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탕고! 2018청년문화일자리 시범사업과 청년인턴의 삶	이지은 최진실 박창하
40	재단·회원 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편집부



‘소확행(小確幸)’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가 되다

안태기_광주대 교수

현대의 시대는 행복을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인 ‘올로(YOLO·You Only Live Once)’가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다면, 2018년에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小確幸)’이 라이프 트렌드를 주목되고 있다. 특히 2030세대의 행복 담론으로 ‘소확행(小確幸)’이 떠오르고 있으며, ‘혼술’, ‘맛집 탐방’, ‘셀프 인테리어’ 모두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다. 평범한 행복, 소소한 가치에 집중하는 행복 키워드로 대중의 공감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이 단어는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만든 신조어이다. tvN <윤식당2>, JTBC <효리네 민박2>는 일상의 소중함을 조명한 대표적인 힐링 프로그램으로 두 방송 프로그램은 소확행 코드와 맞물려 각 방송사의 예능 최고 시청률을 올렸다고 한다. 식당과 민박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담담히 보여줄 뿐인데 말이다. 결국 ‘소확행(小確幸)’은 누구나 겪을 법한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작지만 소소한 행복,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끔보다는 자주, 멀리보다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

는 것들일 것이다. 아주 가끔씩 멀리 떠날 수 있는 해외여행보다는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동네 맛집이나 공원, 서점 등에 방문하는 소소함을 즐겨 보는 것과 많은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그 순간, 즉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소확행에 따른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앞선 이야기했던 것들과 같이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추운 날 밖에 나가지 않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굴을 까먹는 것’, ‘퇴근 후 편의점에서 사 온 캔 맥주 한 모금을 마시는 것’ ‘지인들과 만나 수다 떨고 안부 여쭙는 것’ 등과 같이 일상생활속의 사소한 것들, 무엇인가 성취해서 얻어내는 행복이 아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행복의 정의 중에는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특별한 일로 인해 오는 기쁨보다는 자기 삶에 대해 만족하여 오는 평안함이 행복이라고 정의한다는 것이다.

남은 2018년의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 소확행. 부디 소박하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으로 행복을 누리보길 바란다. ♪

새문화 정책으로서 문화비전 2030이 담고 있는 정책 구상안과 짧은 소견¹⁾



전고필_ 새문화정책 준비단 자율성분과 분과위원

1. 정부의 새문화 정책, 문화비전 2030의 출발 지점

우선 도입 동기부터 보자. 응당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 이전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이 갖는 효용성도 있지만 격동하는 사회적 흐름과 문화적 변화, 정치적 환경의 쇄신, 국민과 문화계의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한 대응이다. 특히나 문화가 갖는 상징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국민의 정부 시절 문화부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 잡은 것이나, 참여정부 시절에 문화부가 창의한국과 새예술정책을 통해 문화국가의 비전을 설정했던 것은 익히 아는 바이다. 하지만 보수정권이라 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문화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명분을 가지고 문화산업 측면으로의 접근이 일상화 되었던 시기이다. 당연히 기본적 예술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가 있는 삶이란 전제를 달면서도 실재의 현황은 그렇지 않았다. 자율은 정권에 가까운 이들의 수단이 되었고, 상생은 그들끼리의 리그였으며, 융합은 위정자의 입맛대로 하는 그들의 비뚤함과 같은 것이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언어로 기초예술이나 문화생태계에 대한 지원 부분은 재갈이 물려져 있었던 최악의 상황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국정농단 등에서 야기된 문화계의 변혁 요구는 문재인정부가 지난 9년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비전을 설계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치닫게 했던 요소가 되었다.

2017년 11월 새정부의 문화정책에 관한 청사진을 그리고자 예술계, 체육계, 문화산업계, 관광분야의 학계, 연구집단, 현장 인력, 시민단체, 문화재단 인력 등이 문화부와 한 자리에 모였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들의 중지와 현장의 목소리, 각 분야의 요

1) 본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준비단의 2018년 5월 16일자 장관 발표 자료와 준비단의 6월18일자 보고서2판 기준 의제 - 대표 과제 - 세부 사업 연계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박사의 한국문화원연합회 2018지역문화경영과정 발제자료 등을 받아서 옮겨 쓰고 짧게 개인의 소견을 첨언한 것입니다. 지금 수립중에 있는 정책으로 문화부와 준비단에서 논의와 집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과 효율 보다는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 젠더불평등이 아닌 평등의 문화,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 소외가 아닌 인간 감성의 문화, 일 중심에서 쉬이 있는 문화, 갈등과 혐오에서 협력과 다양성의 문화로,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불공정과 독과점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가자는 슬로건이 표방되며 페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

구 사항을 수용하여 새롭게 문화비전을 잡아 가자는 새문화정책 준비단의 출범이었다. 다른 한축에서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문화부의 주무부서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전략팀에서 소관하게 되었다. 명을지고 신산하고 분노로 점철되었던 시대를 건너오며 밝고 힘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준비위원들은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앞으로의 비전을 찾고자 했다.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일 중심의 사회, 사람들 사이의 상호 신뢰가 부족한 사회, 자칫 사람이 배제되는 인공지능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4차산업 혁명의 도래 등이 시급한 문제였다. 거기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미투 운동 등을 통해 문화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였으며, 진보와 보수로 극명하게 갈리고, 정치적 이념과 권력의 이해관계로 대립과 갈등이 악순환 되는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정책 비전의 설계가 필요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문화정책이 필요하며, 문화의 기본 가치에 충실한 정책의 설계와 이행이 당면한 과제였다.

2. 사람이 있는 문화의 탄생

그래서 채택한 문화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가 탄생했다. 경쟁과 효율 보다는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 젠더불평등이 아닌 평등의 문화, 4차 산업혁명시대, 인간 소외가 아닌 인간 감성의 문화, 일 중심에서 쉬이 있는 문화, 갈등과 혐오에서 협력과 다양성의 문화로,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불공정과 독과점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가자는 슬로건이 표방되며 페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것은 일과 삶의 조화, 예술가의 자율성 보장, 개인의 문화적 삶을 보장해주며 미래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창의성과 상상력이 사회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문화로의 이행을 주창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출발하게 된 문화비전 2030의 가치는 문화기본법 제2조의 이념인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의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에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가져왔다. 여기에서 자율성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평등하게 자신의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의 가치는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문화정체성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화적 활동, 표현들이 다양한 속성의 공동체들 내에서 자유롭게 발현·존중되는 것을 의미하며, 서로 다름과 차이를 배척하지 않고 존중하며 공존하고 협력하는 사회 기반을 실현하는 것이다. 창의성의 가치는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능력이자 잠재력으로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으로 영역간 융합, 집단간 소통, 협력과 통합을 통한 문제

해결과 사회전반에 창의성이 확산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3.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와 9대 의제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화정책,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만드는 문화정책, 지속가능한 문제해결을 위한 개방형·진행형 문화비전, 2030년까지 미래를 바라보는 중장기 문화정책이어야 한다는 원칙속에서 9대 의제가 설정되었다.

9대 의제는 1. 개인의 자율성 보장 : ①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②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③ 성평등 문화실현, 2. 공동체 다양성 실현 ④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⑥ 지역문화분권 실현, 3. 사회의 창의성 확산 ⑦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⑧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이다 이런 9대 의제에는 다시 대표과제와 핵심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를 풀어보면

첫 번째,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를 위해서 문화권의 중요성을 공표·공유하는 문화권 2030선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잃어버린 시간의 회복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여가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며, 개인의 문화권리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실현되는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문화자원의 공유를 통한 문화재생과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며, 계층과 지역을 초월하는 전 국민적 문화복지 확산에도 주력할 것이다.

두 번째,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보장에서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 체계를 마련하며, 문화예술인·종사자(예술, 스포츠, 관광, 콘텐츠 분야) 노동권·인권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 예술인 복지 통합정책 지원체계구축을 통해 예술가들의 고용보험, 연금제도, 의료 지원정책, 창작 주거 복지 등의 확산을 제안하고 있다. 자율성과 협치에 기반한 문화분야 공공기관 정립 및 지원 체계 혁신을 통해 예술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협치구조를 강화할 것이며, 문화예술계의 위계 폭력, 갑질 근절을 위해 교육 및 신고 센터를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 성평등 문화의 실현을 위해서 문화계의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 침해 구제 등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실태조사 및 업종차별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에 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혁신을, 성우호적인 성평등 문화정책 실현을 위한 인식제고 및 활성화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네 번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을 위해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실행지침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과 정책의 위상을 강화하며, 이 부분에 대한 침해금지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률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정책체의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고, 문화다양성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영향평가를 확대하며 연계성도 제고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다양성 보장과 젠더의 다양성 보장 및 확산을 위한 세부사업의 추진을 제안하고, 언어다양성과 문화유산의 보호 및 증진,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국내·외 관광객 정책 마련 등을 통해 다양성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 번째,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위의 다양성 관련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한국형 아리스 일렉트로 니카 센터의 건립과 커뮤니티 예술지원을 통한 예술공동체 활성화, 다문화 예술인과 이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 등을 제안해 예술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예술지원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및 제도를 개편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 공개 원칙의 확대를 연간 사업의 일회성 지원 심사를 주기별로 상시화하고 생애주기별, 다년도 지원 등 다양화 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 및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고, 불공정 관행 신고센터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문화콘텐츠 유통 및 노동 불공정 개선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문화산업 부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국공립 문화기반 시설의 운영혁신과 민간 예술단체 창작의 다양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며, 문예회관 연합회의 운영방식의 개선, 민간기획사의 매개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스포츠 윤리센터나 공정인권 위원회를

두어 공정하고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고, 출판 미디어 부분에서도 공정 상생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과 관광산업의 생태계를 종합 조사 분석하여 근로 환경의 개선 및 상생 생태계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섯 번째, 지역문화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문화도시, 문화적 도시재생 등에 활성화를 꾀하며, 지역학의 육성, 지역문화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문화균형지수 모델을 개발하고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다각화를 제안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에 문화일꾼의 배치, 주민참여예산, 지역별 교육기관, 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역문화 기관들의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의 강화를 꾀하고 생활권에 기반한 커뮤니티형 문화공간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협치를 위한 협력체계에서는 중앙과 광역, 기초 지역문화협력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문화와 예술간의 협력체계가 가동되고 정보의 소통 및 실행이 원활하도록 권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관광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며, 지역 주도형 관광사업의 추진을 위한 한국형 DMO 설립을 지원하고 공정관광 모형을 개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인권으로서 스포츠 즉, 행복추구권, 건강권, 문화권을 실현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스포츠환경을 조성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마련을 제안하며, 일방적인 중앙 정부의 축제 평가 방식과 지원 정책을 개혁하고 평가 방식, 개최시기 등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문화자치를 담보할 재원의 조성을 위해서는 재원의 확충을 위해 중앙 정부가 노력할 것과 포괄적 보조사업의 확대 및 총액 예산 지원제도화 등을 권하고 있다.

일곱 번째, 문화자원의 융합 역량강화를 위해 창의 교육의 일상화와 융복합 공간의 조성을 통해 여건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콘텐츠의 융합, 관광의 융합을 위한 문화자원과 신기술의 융합 촉진을 요구하고 있고, 문화자원의 기록 보존 체계도 강화하고, 융합 역량제고를 위해 세제 지원과 제도의 개선을 개선하고 있다.

여덟 번째,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를 위해 문화와 체육, 관광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의 획기적 전환을 제안하고 있으며, 해외문화원을 문화예술교류의 전진기지로 개편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적 상호협력을 위해 ODA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문화예술인 및 청소년, 청년 등의 쌍방향 문화교육을 활성화 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여는 문화의 섬, 문화로드 프로젝트로 백령도를 활용하는 문화의 섬 프로젝트의 추진과 DMZ문화로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교류와 협력 사업의 확대를 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예술중심으로서 활성화의 토대에서 가능하게 하고, 한중일, 한 아세안 포럼 등의 확대를 꾀해야 한다는 제안과 관광부분에서는 동아시아 자유관광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아홉 번째,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학습·해결의 문화 플랫폼' 모델의 확산을 꾀한다는 것으로 일터와 삶터가 결합된 '문화지대' 를 조성해 볼 것과 프로젝트 기반형 혁신학교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동체형 문화일자리를 확대하고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공공문화 서비스의 사회문화적 일자리 전환을 꾀하고, 지역의 유·무형자산을 활용한 문화공유지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공간의 재상을 제안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문화적 대응 방안으로서 환경·에너지·생태와 결합된 문화적 전환도시 계획의 도입을 제안하며, 문화시설과 각종 문화행사에 에너지 전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범부처와 협력하여 사회의제를 주도하는 문화정책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의 협력을 통한 의제 발굴 및 실행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문화화를 위해 문화영향 평가의 확대 및 실효성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4. 실행력은 어떻게

기본 방향으로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진흥육성이 아닌 민간 현장 중심의 자율적 지원 조성 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행정의 혁신을 꾀하는데 가장 문화비전 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문화기본법 개정시 설치하고 상시적인 통합 정책 협의체계 마련 하며, 정책 폐널제도, 소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 지원을 개방하는 것이다. 또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변화된 사회환경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자 헌법에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국가의 원리와 개인의 문화권을 반영하고,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문화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한다.

행정 주체별 역할 재정립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하여 국정 운영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가단위의 문화정책의 기획, 조정, 각 사업의 관련 부처간 협력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전국 단위 지역문화의 연계, 국제 문화 교류, 문화기술 개발 등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사업에 관한 예산집행 및 사업관리 등 실제 사업의 추진단위는 관련 지자체나 산하기관이 수행하며,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수평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협력구조를 정착하도록 한다.

재정운영 방안은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삶이 중심이 되는 체감형 문화정책에 우선 투자 하고,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의 편의와 선택을 중시하는 서비스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는 탁월성과 전문성으로 소액 다건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다양성과 보편성 등으로 사업을 분류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평가부분은 문화재정의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전심사의 강화, 성과평가의 시행 등 재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강화하며, 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업추진 및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해 책임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성과 평가 및 컨설팅 기능을 확대한다.

이렇게 발표되고 공유되었다.

5. 그래 사람만이 희망이다.

너무나 황폐화 된 지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게다가 적폐의 청산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서 비전을 설계하고 그와 관련되어 실행해야 할 세부사업까지 제안하고 마쳐야 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지점이다. 필자는 1월경에 준비단의 자율성 분과위원으로 뒤늦게 합류했던 터다. 모두들 전문성을 가진 분이었고, 제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분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어느 시선에서 보느냐에 따라 내용은 변주된다. 이를테면 문화부 스스로의 자성은 부족하다는 점이나, 블랙리스트를 시행했던 이들이 별탈없이 그 직위에 있다는 점이 그러했다. 또한 중앙 정부에 버금가는 권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도 정작 정책 부서 앞에서는 부서의 존망과 정책 권력으로서의 길들여진 면모를 쉽게 놓진 않는다. 거기에 어찌 되었던 지난 정부와 그 전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고 수행했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도 함께 있었다. 정권이 바뀔다고 정책 현장의 일이 다 바뀌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딱히 그 분야에서 다른 정책 연구자를 찾기 쉽지 않는다고 계속 눌러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에 살고 문화와 관광 두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연구원의 전문가에 비해 정책 환경에 눈이 어둡고 정책을 둘러싼 이합집산의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도 파악조차 못하니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고 쉽사리 자신의 인생을 걸고 여기 준비단에 오지 못하는 분야도 존재했으니 외려 국책 연구단에 고마워해야 할런지도 모른다. 모두 수양이 털 되고 학습이 털 되고 현장에 더 천착하지 못한 필자의 한계임을 자임한다. 아직은 그래도 의견을 개진할 것이 있지만 그 의견의 관점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에도 원고를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운을 떼 본다.

첫 번째, 문화체육관광부의 혁신적인 인식과 행동의 전환이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비전이라는 개념적 언어로 모호하게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제안은 있되 이를 검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속적인 조직이 없다는 점이다.

네 번째, 현장의 날 것 그대로의 개선 요구와 신규 사업의 요구 등이 탑재되지 못했다는 점이다.(탑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

다섯 번째, 지방분권 시대 지방 정부로의 정책이관 등에 관해 소극적인 설계라는 점이다.

여섯 번째, 문화비전이기 때문에 체육이나 관광, 문화산업, 영상 미디어, 출판, 문화유산 등이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것이다.

일곱 번째,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위상과 힘이 있어야 하는데 타 부서와 협상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여덟 번째, 전당장 없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일몰제로 주름지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광주 비엔날레 등 대형 국책사업 및 국제 행사 등에 관한 언급과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아홉 번째, 삶이 있는 문화, 생활문화를 이야기 하면서 문화의집,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생활문화센터 등 근린 생활문화시설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열 번째,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수반되어야 할 예산의 출처가 불분명 하다는 점이다.

자기 발등을 찌고 있으면서도 고통을 모르는 것과 진배없는 사사로운 감정이지만 저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 못한 필자의 죄가 크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속에 남도 사람으로서 내가 내게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첫 번째,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왜 새문화정책준비단에 제시지 않았을까라는 허탈감.

두 번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한 요구는 왜 청와대나 문화부나 새문화정책준비단에 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자책.

세 번째, 문화부나 문화관광연구원의 각종 토론회나 포럼 등이 광주 전남 지역을 비껴가는 현상은 왜 일까 라는 소외감.

네 번째, 50대 초반인 필자가 꼰대라고 지칭되고 또 자칭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비애감.

다섯 번째, 대체 여기에서 살려면 어디 출신이어야 되는지 이질감.

여섯 번째, 왜 광주와 전남은 나와 인연이 닿지 않지 라는 거리감.

일곱 번째, 왜 우리지역의 각 문화기관은 정부기관이나 산하기관과 교섭력이나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못할까 라는 허무함.

여덟 번째, 대체 한국예술위원회나 콘텐츠진흥원이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왜 왔지 라고 묻고 싶은 호기심.

아홉 번째, 어르신들은 많은데 큰어른이 없다고 말하게 된 도시가 되어버린 남도의 현주소.

열 번째, 동네에서 한 사람만 건너도 아는 얼굴끼리 돌아서면 몹쓸 사람이 되어 있는 배신감.

열한 번째, 지역을 대표하고 밖으로 자랑할만한 스타플레이어, 스타 브랜드, 핫플레이스 하나 제조 못하는 경쟁력.

열두 번째, 내가 가진 생각을 펼칠만한 장소나 동료나 선후배를 만나기 어려운 엇갈린 공유지의 비극.

열세 번째, 대체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할 수 있는 8명의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는지 정체성 결핍.

사람이 있는 문화를 거론하면서 너무나 소아적인 이야기로 갈무리하는 비애의 끝은 광주는 문화수도라는 외침보다 義鄉, 藝鄉, 味鄉의 도시에서 사람을 공경하고 흠모하는 도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해 주고 보듬어 주는 人鄉의 인본도시가 먼저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사람이 있어야 문화가 있다. ♪

'6·13 지방선거 문화정책연대'

- 민선7기 문화정책의 방향과 10대 핵심 정책 제언

윤준혁_ (주)엘리파이브 대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지난 촛불혁명 이후 시민들은 그들의 리더를 뽑는데 조금 더 엄격해졌다. “당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사람을 봐야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렇게 우리는 토크빌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맞이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선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좋아 보인다. 지난 10년간 잊힌 줄 알았던 통일이라는 단어가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과거 누군가가 말했던 대박에 가까워지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선전 때문인지 광주는 여당의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이 본선보다 더 화제거리였고, 언론도 이목을 집중했다. 우스갯소리로 “이미 선거가 다 정리된 분위기다...”라는 말도 나온다. 이럴 분위기 일수록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지난 4월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예총 그리고 상상실현네트워크가 ‘6·13 지방선거문화정책연대’ (이하 ‘문화정책연대’)라는 이름으로 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발굴 해 각 후보자들에게 제언하고 이것을 얼마나 수용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문화정책연대’는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예총, 상상실현네트워크를 공동간사단체로 하고 총 38개의 문화관련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연대조직이다. 광주에서 오랫동안 광주의 문화콘텐츠와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해 온 문화·예술인 및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이 각 당의 시장후보자들에게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상향식의 제언을 목표로 조직되었다.

우선 ‘문화정책연대’는 민선7기를 맞이하여 ‘문화공동연대’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문화행정의 혁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실현’, ‘시민문화권 확대’ 크게 세 가지 분야 아래 10가지의 세부정책을 발굴했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보조금사업 개선 등 기존에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의 민원 뿐 아니라 청년을 위한 청년문화의 집 건립이나, 장애인의 보편적인 문화지원을 위한 광주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과 같은 인프라 조성 등 문화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했다.

이후 ‘문화정책연대’가 발굴한 10대 핵심 정책을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예비후보(·민주당 강기정·양향자·이용섭 ·정의당 나경채 ·민중당 윤민호)에게 정책제언을 하였고 후보자들로부터 제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유 없이 대부분 유보입장을 밝힌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

‘문화정책연대’는 단순한 정책제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언된 정책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와 함께 시민들이 누리고 영향 받는 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콘텐츠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모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광주사회의 건강한 문화적 발전을 위한 활동의 2막을 시작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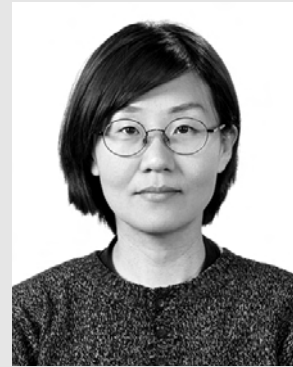
자들이 ‘문화정책연대’가 제언한 문화정책 방향과 10개 핵심 정책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수용도 평가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민선 7기 출범전까지 후속조치는 당선자 인수위와 간담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1차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후보자 평가만큼이나 ‘문화공동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냉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문화정책연대’의 한계는 민주당의 경선이 본선 못지않게 치열했던 광주지역의 특성상 빠르게 진행되어야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모아내어 모든 당의 후보자에게 두루 제언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와 관련된 정책의 발굴과 수렴 그리고 제언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쩌면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문화·예술인 및 시민이 활동하고 있던 단체들의 연대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자평한다.

정책은 만들어내는 입법과정이나 그것을 시행하는 행정 못지않게 그것을 감시하고 감사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문화영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 내에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향유하는 것 못지않게 문화가 자리 잡은 지역의 문화적 토양을 살피며 연구하거나, 만들어진 정책의 시행에 대해 반문하거나 감사하는 역할이 중요해 졌다. ‘문화정책연대’는 단순한 정책제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언된 정책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와 함께 시민들이 누리고 영향 받는 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콘텐츠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모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광주사회의 건강한 문화적 발전을 위한 활동의 2막을 시작하려고 한다.

일찍이 백범김구의 말처럼 ‘자신을 행복하게하고, 나아가서는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다. 문화는 한곳에 정체되거나 누군가 소유할 수 없다. 문화가 힘 있는 이유는 나누거나 모두가 향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오랫동안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노력해온 문화·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협치와 자치분권이다. 힘 있는 자치분권을 위해선 시민사회와의 협치가 절실하다. 이제는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일꾼이 얼마나 우리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를 훑아볼 시간이다. ^^

현장에서 바라본 지방정부 문화정책 혁신



- 예술가의 존립, 그리고 광주를 바꾸는 문화예술,
그 실천과 가능성을 기대한다.

임인자_ 독립기획자, 소년의 서 대표

금남로 거리에서 어린시절, 걸개그림을 통해 세상을 배웠다. 시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붓끝에서 전해져오는 분노와 질문들을 통해 역사와 시대를 배웠다. 예술은 5·18민중항쟁 뿐만 아니라 6월 항쟁, 세월호 사건 등 시대를 거쳐 언제나 당대를 표현하며 함께 걸어왔다. 의향, 미향, 예향 광주는 이러한 예술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시대를 말하는 것을 넘어 삶의 뿌리에 단단히 자리잡으며, 시대를 앞서왔던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다시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논의까지 이어졌다.


대규모 정책 사업들이 이어지며 광주 시민들의 기대도 높아졌다. 그러나, 관 주도 특히 국가 주도로 이어지면서 자발적인 현장의 생태계는 무너졌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는 5·18에 대한 검열과 민주 인권에 대한 표현의 탄압이 이어졌다. 관 주도의 일방향적인 정책 수행이 진행되면서, 시민들과 괴리 상태에 놓였다. 지역 예술가들이 주체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었다. 이를 견제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광주광역시 역시 거의 적극적인 실천과 행보보다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 사실상 아시아문화전당의 독주를 방치했다.

광주광역시의 문화정책의 비전과 실천은 어떠한가. 우선 광주광역시 행정직제상 현재 '문화도시광주' 비전에 걸맞는 직제는 마련되어있지 않다. 문화부시장체계 마련이 절실하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인권평화협력관', '지역공동체추진단' 등 상위 아젠다 그룹 조직에 포함되어 실천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직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도시정책관 문화예술진흥과 등으로 이루어진 공무원 조직으로만 이루어져있다. 민간 전문 협력관 제도로 변화하여 전문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민관협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민관협력체제의 상징인 각종 위원회는 실질적인 정책 수행과 실천을 담보로 하지 않아, 비전만 난무한 실정이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체계 마련과 실천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어야 한다.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왔던 지역예술가들에 대한 존중,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생존 가능한 예술가의 존립의 보장, 신진 및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특화, 중견 예술가들의 지속 가능성, 삶의 뿌리에서 함께 호흡하고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의 문화예술, 관주도가 아닌 민간의 활성화, 여성 및 소수자와 배제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꽃피는, 지역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삶을 횡단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전면적인 개혁과 혁신을 요구한다.

또한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축으로서 광주문화재단은 광주광역시의 사업 수행처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광주광역시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 또한 광주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예술가들은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할 파트너이자 주체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관주도, 기관주도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문화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예술과 예술가들의 현재 위치를 재점검해야 한다. 기초예술에 대한 정책 수립, 예술가 및 단체의 존립의 문제와 존립 기반 마련을 위한 민-관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청년(신진)예술가 지원 사업 특화, 1회적인 지원사업의 형태에서 벗어나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가시적인 성과나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집중하며, 연구와 리서치, 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지원이 절실하다. 일방향적인 관주도의 정책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민간이 활성화하고 예술가들이 더욱 주체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주도할 때 문화도시광주의 비전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광주를 바꾸는 예술, 예술가의 존립을 더욱 고민하는 광주광역시가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어야 한다. 오랫동안 지역을 지켜왔던 지역예술가들에 대한 존중,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생존 가능한 예술가의 존립의 보장, 신진 및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특화, 중견 예술가들의 지속 가능성, 삶의 뿌리에서 함께 호흡하고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의 문화예술, 관주도가 아닌 민간의 활성화, 여성 및 소수자와 배제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꽃피는, 지역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삶을 횡단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전면적인 개혁과 혁신을 요구한다. 삶에 뿌리를 둔 예술의 형식과 태도는 다양하게 존재해야 한다. 문화도시비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 변화를 위한 재구성과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어쩌다 소설가, 서용좌

- 서용좌 소설가

박신영_편집위원

박신영 서용좌 교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소설을 쓰는 입장이지만, 오늘은 지난겨울 제 33회 PEN문학상 수상자를 인터뷰하고자 왔습니다.

서용좌 반갑습니다, 국제PEN광주 박신영 회장님이시군요. 그래서 PEN문학상을 더 알아 봐 주시고요.

박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인터뷰의 중점은 독문과 교수로서의 길을 걸어오시다가 늦깎이로 소설가로 변신하신 부분에 맞추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소설을 쓰시게 되셨는지요?

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러니일지, 독문과 교수라는 정체성이 저를 소설가로 내몬 주범입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문학은 언어를 초월해서 소통되어야하므로, 누군가는 독문학을 한국어로 매개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

요, 평생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다른 언어로 된 글을 파먹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자판 위를 달리는 손가락이 하이에 나처럼 넷으로 변하고 꼬리가 스멀거리며 돋는 느낌에 소스라 쳤다면 어땠을까. 그런 순간이면 '내 글'을 써야만 했습니다.

박 소설가로 데뷔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요?

서 출판사를 차린 제자들의 성화에 그동안 써두었던 습작원고들을 정리해서 첫 장편소설 『열하나 조각그림』(2001)을 펴내게 되었고, 소설가 중심의 한국작가교수회에서 등단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서도 독문과 교수로서의 책임을 더 크게 안고 살았습니다. 마침내 『도이칠란트 도이치문학』(2008)에서 지식을 다 털어 내놓고 나니까 더 이상 무의미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떠날 시간이었던 겁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구실을 정리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속으

로 말했습니다, 내 소설 쓰기만 하겠다.

박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이 한국소설가협회였지요? 광주사람이면서도 초창기엔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셨던 걸로 압니다만, 광주에서 소설가로서 산다는 소회 같은 것은요?

서 예, 서울에서가 맞습니다. 한국작가교수회 안내로 이런저런 단체에 가입했고, 자격이 되자마자 PEN한국본부에 들어갔지요. 제가 전공했던 하인리히 뵐이 노벨문학상 수상자였을 뿐만 아니라, PEN서독본부 회장에 이어 PEN세계본부 회장을 맡았었기에 그리 생각했지요. 그러다가 PEN한국본부 가입에 추천도장을 찍어주셨던 당시 PEN광주 김종 회장님이 몇 년 후 광주문단으로 안내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영호남 문학인 교류행사에 느닷없이 강연을 부탁하셨거든요. 주제가 ‘독일통일과 문학’이라서 영거주춤 수락을 하게 되었고, 서툰 강연과 뒤풀이로 신고식 호되게 치렀지요. 그리고서 PEN광주, 광주문인협회, 광주전남소설가협회 등 최소한의 활동 무대를 트게 되었습니다.

박 소설을 쓰시면서 PEN바라기셨네요. 마침내 PEN문학상을 받으셨으니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서 감회라니, 뭘가에 맞은 듯 어리둥절했지요. 소설쓰기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서야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니 아직도 수습단계인 느낌이지요.

박 PEN문학상 수상작은 『흐릿한 하늘의 해』이죠? 어떤 줄거리라고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서 그런데 줄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줄거리도 주인공도 없고, 가공의 서술자가 있을 뿐입니다. 1975년생 한금실이 이전 작품인 『표현형』에서부터 가공의 서술자 역할을 맡았으니, 『흐릿한 하늘의 해』는 실은 그 속편입니다. 그렇지만 속편이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쓰는 이야기들은 겨우 파편들이니까요. 저의 서술자는 순전한 우연으로 조우하는 인물들에 대한 ‘시선’을 기록할 뿐입니다. 인생에는 개연성의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글은 아무렇게나 흐트러 집니다. 소설의 기본이라고 하는 플롯은 제 관심사가 아닌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입니다. 인생에는 플롯이 없으니까요.

박 심사평이 『PEN문학』 141호에 실렸던데, 일단 “이 소설은 우선 독특하다. 문체도, 구성도, 내용도 독특하다.”라

는 관점을 말했더군요. “사유가 돋보인다” 라고도.

서 예, 뭘. 제 느낌으로는 후보작에 오른 다른 작품들의 유려함에 비추어 제 작품은 덜 다듬어진, 뒤랄까 거칠고, 비예술적이고 그런 점이 눈에 띄었을 런지요. 제가 소설쓰기를 단 한 시간도 강의 듣거나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작품들과 같은 세련미가 없지요. 방식도 모르니까요. 줄거리 중심의 서사가 부족했다는 평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 다음으로는 예상하셨을 질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서 무작정 쓰는 사람이 계획 같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동안의 서술자와 이별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젊고, 해서 이번에는 58년생 나남이가 서술을 시작했습니다. 또 한금실이 팽성 출신인 것과는 다르게, 나남이는 이 고장 출신입니다. 조금 더 진실성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박 나남이, 이번엔 이름까지도 독특하군요. 나는 남이다, 뭘 그런 겁니까?

서 꼭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고 싶은 욕망이 그런 이름을 내놓았지 싶습니다. 들켰습니다.

박 소설 쓰기는 요령이 아니라 끈기라고 하는데 그 힘든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서 힘든 작업…… 소설쓰기를 힘들다고 느끼면 잘 안 써지겠지요? 차라리 배고파서 먹듯이 쓰고파서 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잘 못 쓰는 실수를, 실패를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그냥 쓰는 것입니다. 어차피 소설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소설을 쓰는 자신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쓰다보면, 들뢰즈의 의미에서 어제의 내가 오늘 미미한 차이로서 다르게 존재한다면, 내가 쓰는 글들도 미미한 변화 속에서 존재하리라고 믿습니다.

박 여러 이야기들 감사히 들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 아쉽습니다. 자 그럼, 나남이씨와 함께 미래의 즐거운 행로를 빕니다.

서 오늘 두서없는 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획연재_ 호남지역의 서원, 향교, 사찰, 정자의 현판과 주련이야기

그림자도 쉬어가는 곳 ‘식영정’

임준성_ 광주여대 교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그림자를 떼어내려고 끝없이 달아났다. 그러나 그림자를 떼어내기는커녕 그럴수록 더욱더 빠르게 뛰었지만 끝내 벗어날 수 없었다.

식영정(息影亭)은 전남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로 89에 있다. 광주호를 앞마당 삼아 그 앞에 무등산이 바라다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정면 2칸, 측면 3칸으로 지붕의 모습은 새가 날개를 펴고 앉아 있는 모습의 우진각 지붕이다. 마루가 기자 모양을 하고 있고, 한 칸에 방을 들여 앉혔다. 오른쪽에는 수령이 300년 정도로 가늠할 수 있는 노송이 우뚝 솟아 있고, 뒤로는 한 여름 마치 불타는 듯한 붉은 꽃이 무리지어 피는 배롱나무로 뒤덮여 있다. 원래 식영정은 창계천이 앞으로 흐르는 높다란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 광주호로 조성되면서 옛 정취는 사라졌지만 별피라 부르는 성산을 배경으로 하여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밤하늘의 별은 변함없다.

이 누정은 1560년(명종 15) 서하당 김성원(棲霞堂 金成遠, 1525~1597)이 자신의 스승이자 장인이었던 석천 임억령(石川 林億齡, 1496~1568)을 위해 지었다. 그의 시문집 『서하당유고(棲霞堂遺稿)』에 “공이 36세 되던 해인 1560년, 창평의 성산에 식영정과 서하당을 지었다(庚申公三十六歲 築棲霞堂于昌平之星山)”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영정의 주인 임억령은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당시 호남 사림(士林)을 대표하는 놀재 박상(訥齋 朴祥, 1474~1530)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30세에 과거 급제하였으며, 충청도 금산군수로 재직하던 중 을사사화(乙巳士禍, 1545)가 일어났다. 그의 동생인 임백령(林百齡)이 연루된 것을 알고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마을에서 지냈으나 다시 관직을 맡아 담양 부사를 끝으로 은퇴한 후 사위가 지어준 식영정에서 지냈다.

여기서 누정의 이름인 '식영(息影)'의 뜻은 임억령이 지은 「식영정기(息影亭記)」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대는 장주(莊周)의 말을 들어봤는가? 장주가 말하기를, “옛날에 그림자를 무서워한 사람이 있었는데 낮에 달러가면 그림자는 더 빨리 달려서 그림자가 끝내 쉬지 않고 따라오다가 나무 그늘에 이르러서야 문득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무릇 그림자는 하나같이 사람을 따라다니므로 사람이 앞드리면 그림자도 앞드리고, 사람이 쳐다보면 그림자도 쳐다본다. 그 밖에도 가면 가고 쉬면 쉬니 오직 그의 형세가 그런 것이다. 그늘이나 밤에는 없어지고 불빛이나 낮에는 생기니 사람의 처세도 또한 이런 유(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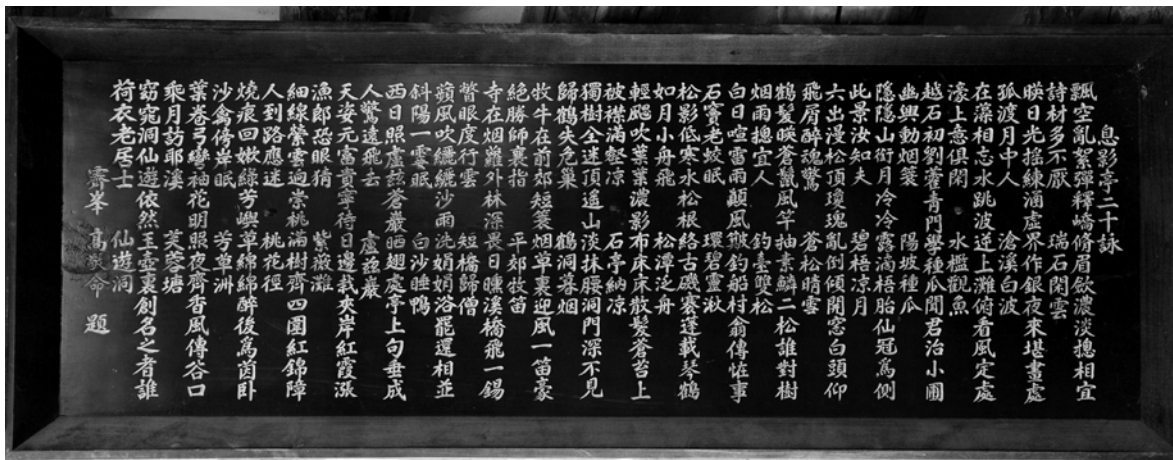
옛말에, “꿈과 그림자는 물거품(夢幻泡影)이다.”라고 하였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 그 형체는 조물주에게서 받았으니, 조물주가 사람을 희롱함이 어찌 형체가 그림자를 부리는 것에 그치겠는가? 그림자의 천변만화는 사람 형체의 처분에 달려있고, 사람의 천변만화도 또한 조물주의 처분에 달려있으므로 사람은 마땅히 조물주가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니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아침에 부자가 저녁에는 가난해지고, 옛적에 귀한 사람이 현재는 천하게 되는 것이 다 조물주의 노추(爐錘) 가운데의 일인 것이다.

임억령은 『장자(莊子)』의 「제물론(齊物論)」에 나오는 이야기를 빌어 설명하고 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몸에 붙어 있는 그림자를 떼어내려고 끝없이 달아났다. 그러나 그림자를 떼어내기는커녕 그럴수록 더욱더 빠르게 뛰었지만 끝내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이 다해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림자를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늘에서 쉬는 것 뿐이다. 여기서 그림자는 '욕망'이다. 욕망은 인간의 보편적 지향 감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결국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만다. 장자가 말한 어리석은 사람은 욕망의 주체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오늘날처럼 바쁜 일상에서 한 박자 쉬었다가는 마음의 여유가 그 어느 때처럼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임억령은 관직에서 물러난 뒤 이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유유자적하며 지냈다. 그는 호남의 사종(詞宗)으로 시와 문장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그에게 시문을 배우기 위해 당대 시인묵객들이 자주 드나들었는데, 면양정 송순(旼仰亭 宋純), 사촌 김윤제(沙村 金允悌),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고봉 기대승(高峯 奇大升), 소쇄처사 양산보(蕭灑處士 梁山甫), 송강 정철(松江 鄭澈), 제봉 고경명(霽峯 高敬命), 옥봉 백광훈(玉峯 白光勳) 등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들은 식영정



1 식영정 전경
2 식영정 현판



식영정 제영

의 아름다운 풍광에 취해 시문을 즐겨 지었으며 '식영정가단(息影亭歌壇)'을 형성시켰다. '식영정사선(息影亭四仙)' 또는 '성산사선(星山四仙)'이라고 부르는데, 식영정 주변 풍광을 원근으로 담아 20개의 소재목을 같이 공유한 연작제영시 「식영정20영」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중 임억령이 지은 첫번째 제영 '서석산 한가로운 구름/서석한운(瑞石閑雲)'을 보자.

溶溶嶺上雲(용용영상운)

纔出而還斂(재출이환렴)

無事孰如雲(무사숙여운)

相看兩不厭(상간량불염)

몽게몽게 산마루에 오른 구름

잠깐 나와 다시 흩어지네

그 누군가 구름처럼 한가할까

바라만 봐도 서로 싫증나지 않구나

무등산 산꼭대기에 구름이 한가롭게 노닐고 있다. 어느새 구름이 사라지고 없다. 구름이 본래 있다가도 없어지는 물건이니 굳이 마음에 얽매일 필요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에 저절로 한가함이 오지 않겠는가. 바라만봐도 싫증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속세의 띠끌을 털어버리게 한다. 성산 위로 뜬 밤하늘의 별들이 식영정 앞 호수에 잔잔히 비치고 있다. 마치 꽃처럼 수놓은 듯하다. ♪

전시회 스케치

김인숙 첫 번째 사진전시회

- 햇살, 바람, 봄 그리고 사랑

동구 동명동은 오붓한 숲길과 정감 있는 골목,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카페와 책방, 이색적이고 다양한 먹을거리로 가득한 골목이 옛 도심의 영화?를 다시 찾아가고 있다. 그곳에 가면 젊은이와 예술가들이 상상력 가득한 행사와 퍼포먼스로 발길을 붙잡는다. 마음이 답답할 때 시간여행을 떠나기에도 좋은 카페 '보리와 이삭' 에서 지난 5월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사진작가 김인숙 씨의 첫 사진 전시회가 있었다. 한 달 동안 이 카페에 들른 손님들은 편안한 순간의 풍경을 포착한 사진과 차 한잔으로 특별한 문화나들이를 즐기며 일상이 꿈이 되는 예술의 세계에 빠졌다.



명봉역의 아침



1 아침이슬 2 핑크빛 사랑 3 구절초 이야기 4 구절초 사랑

인상사진 추천작가로 20여 년 넘게 사진 예술에 몰두해 온 김인숙 작가는 문산마을 공동체에서 빛과 예술 마음을 나누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마을 학교 -꿈C 사진동아리를 이끌고 있다. 김인숙은 사진을 통해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소소한 풍경과 지나온 길, 기억, 경험을 기록하며 한 장 또는 여러 장의 사진 속에서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찾아내고 들려주었다.

김인숙 작가는 도록의 첫머리를 '사진은 사랑이다'로 적었다. 인생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자신의 한부분 아니면 전부를 내어주어야 할 때도 있다. 작가에게 사진 작업은 사랑을 얻기 위한 희생과 고통이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그 작업의 결과를 묵묵히 응원하고 지켜보아 준 이들, 인상사진에서 순수사진까지 그녀의 전시회에 걸린 사진들은 지나치다 놓친 한순간이 렌즈에 포착되어 강렬하고 화사하게 재구성 되었다. 숨쉬는 사진, 호기심이 가득한 사진, 빛과 색채가 이상의 메아리를 들려주는 사진... 취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녀의 사진은 어떤 주어나 상식 보다 위안을 주었고 행복을 느끼게 했다. 똑같지만 다른 질서- 사진은 그런 매혹을 준다. 이제 그녀의 사진 몇 컷을 돌아보며 전시회의 추억을 함께 나누어 본다. ♪

- 김정희_재단 편집위원장, 시인

불로동 다리 아래 광주천이 흐르고

편집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발간한 『광주 역사문화 자원 100』(2016년)에서 광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뽑아 실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내가 그를 두 번째 본 곳은 불로동 다리 위였다. 불로동 다리는 광주천에 놓인 다리 중 가장 작고 낮은 다리였다. 다리 위는 미끄러웠다. 이삼일 전에 내린 눈이 반질반질 얼어붙었고 하늘에서는 제법 큰 눈송이들이 내렸다. 그는 길을 더듬어가는 지팡이를 지니고 있었고, 검은 안경을 끼고 있었다. 안경을 낀 모습이 생소했지만 분명히 목욕탕에서 만난 그였다. 아무런 구김살 없이, 아무런 불편도 못 느끼다는 듯이 목욕을 끝내고 나서던 그의 모습이 새삼 떠올랐다.

빙판길을 조심조심 걸어오던 그의 한쪽 가슴에 꽃다발이 안겨 있었다. 프리지어였다. 회색빛의 도시와 노란빛의 꽃다발이 싱싱하게 어울렸다.

“참 예쁜 꽃이네요.”

인사 겸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여전히 맑게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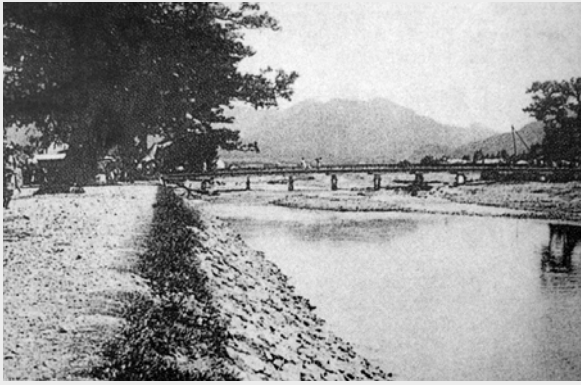
“아내가 좋아해요.”

아내? 나는 조금 놀랐던 것 같다. 그에게 아내가 있으리라는 생각 같은 건 해보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멈춰 서서 꽃다발을 안고 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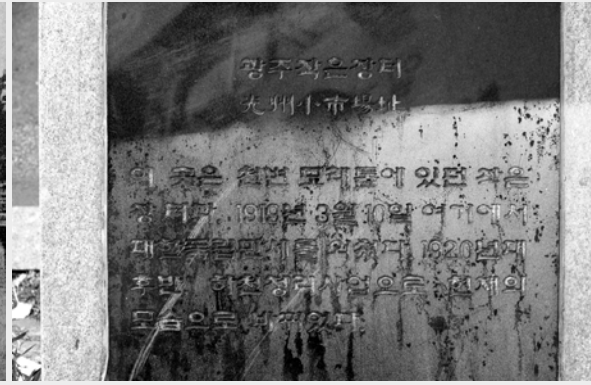
머칠 뒤, 작업실 창문으로 불로동 다리 쪽을 바라보던 나는 또 한 장의 그림엽서를 보았다. 두 사람이 다리를 건너 동네 쪽으로 오고 있었다. 지팡이로 길 앞을 더듬어 오는 친구는 분명히 그였다. 한 사람은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여자였다. 검은 안경을 낀 여자는 완전히 그에게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 곽재구의 「길귀신의 노래」 중에서

1980~90년대 곽재구 시인의 작업실은 불로동 다리 옆 적산가옥이었다. 화가 한희원을 비롯한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미술인들의 작업실도 함께였다. 뒤엔 사직공원이 있고 광주천이 흐르는 마을, 불로동. 광주의 중심가인 충장로가 지척이면서도 내가 흐르고 공원이 있는 이 마을의 기운은 한마디로 낭만적이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사직공원 어귀에는 통기타 가수들이 운영하는 술집들이 있다.



부동교



광주작은장터. 부동교와 서석교 건너편 위치

의병들의 처형장에 세워진 조선인들의 다리

낭만적인 동네에 놓인 청춘같은 이름을 지닌 불로동다리. 정식 행정명은 '부동교'다. 지금이야 낭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동교는 아픈 역사의 현장이었다.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는 여순사건 당시 소화다리 학살 장면이 나온다. 남과 북이 갈라진 분단조국에서 살아가는 민초들이 자신들이 건너다니던 다리에서 학살되는 장면은 끔찍하다.

가족들과 일가가 지켜보는 장소에서 공개처형을 한다는 것은 끔찍한 공포였을 것이다. 너희들도 이 꼴이 나기 전에 조심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광주천의 다리들도 소화다리처럼 비극의 현장이었다. 부동교가 대표적이다.

광주의 도시화 과정은 광주천 오른쪽에서 시작됐다. 금남로와 충장로에 전남도청을 비롯한 공공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본격화됐다. 부동교 부근에는 작은 장과 사동을 잇는 흠다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07년 광주교(일명 공원다리)가 놓여졌다.

부동교는 1920년대 조선인들이 사동 인근의 시장으로 가기 위해 건너다니던 다리였다. 직강 공사 이전 사행천이었던 광주천 주변에는 백사장이 여러 군데 있었고 천변 양 옆으로 시장이 발달했다. 1920년대 광주천 직강 공사 후에는 큰 장과 작은 장을 하나로 합쳐 새로운 장이 생긴다. 그때 생긴 다리가 부동교다. 시내 사람들에게 장을 보기 위해 건너 다닐 다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만세운동의 현장, 부동교 아래 장터

구한말에 의병들을 처형했던 이 천변에 놓인 부동교는 3·1 만세운동의 현장이기도 했다. 1919년 3월 10일 오후 3시, 부동교 아래 작은 장터에는 천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 김순배를 필두로 한 기독교인들과 송일고, 수피아여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집결했다. 농업고등학교 학생들과 시민들도 가세를 했다. 김순배가 맨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군중들도 만세를 외쳤다. 만세소리가 광주천을 찌렁찌렁 울렸다. 광주천은 그날의 절절한 함성을 간직하고 있다.

80년 5·18때는 이곳 부동교 인근에 적십자병원이 있었다. 시내에서 가까운 이 병원으로 부상자들이 몰려들었으며 현혈을 하겠다는 시민들도 줄을 섰다. 그런데 이 부동교 인근에서 헬기에 의한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온다. 당시 5·18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고 조비오 신부는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한다.

그때 나는 우선 도청 앞 분위기를 살펴보고 밖으로 나왔다. 사제관을 나와 성당 앞 철문에 막 이르렀을 때이다. 헬기가 기수를 광주공원 쪽으로 향해 가면서 광주전 불로동 다리쯤의 상공에서 불빛이 50센티미터에서 거의 1미터 정도로 쪽 뻗으면서 '드드그 드드득 드드득' 세 번이나 같기는 기총사격 소리가 들렸다. 혼비백산한 나는, 반사적으로 담 벽에 바짝 붙어서 헬기를 응시하였다. 순식간에 헬기는 공원을 넘어 월산동 쪽으로 사라졌다. 나는 너무도 놀라 가슴이 뛰고 다리가 후들거리려 성당을 나서지 못하고 사제관으로 되돌아갔다. 다른 신부들도 기관총 소리에 매우 놀라 밖으로 나오면서 웬 기관총 소리냐고 겁먹은 표정으로 묻는 것이었다. 나는, '헬기에서 기총사격을 한 소리다' 라고 말했다.

당시 조 신부 뿐 아니라, 이광영 승려, 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 10여 명이 불로동다리, 즉 부동교 인근 상공의 헬기 기총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광주의 핫플레이스가 집결한 곳

지금 부동교에서 충장로로 연결되는 도로는 광주의 '핫플레이스' 들이 모인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 인테리어가 뛰어난 레스토랑을 비롯해 개성적인 맛집, 맥주집, 옷가게 등이 모여 있어서 광주의 '가로수길' 이라 칭해지기도 한다. 구시청사거리의 술집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개성 있고 독특한 멋을 자랑하는 공간들이 많다. 유니크한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하공간을 개조한 보세옷 가게들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 멋쟁이들이 즐기는 새로운 공간으로 부동교 인근은 거듭나고 있다. ♪



현재 부동교 전경

문화현장

세계청년축전 개최의 의미와 역할



이지훈_2018세계청년축제 총감독

2015년 7월,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더 뜨겁게 만드는 메가이벤트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세계대학생들의 스포츠축제인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린것인데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170여 개국 2만여 명의 세계대 학생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12년만에 열리는 이 대회를 준비하며 청년도시 광주를 표방하는 광주시는 세계대학생들을 맞이하는 광주청년들의 문화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렇게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축제인 '세계청년축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2일간 열리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기간중 두 번의 주말을 포함해 총 9일동안 세계청년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7월 괜찮은 청년들 광주로가자!'란 주제에 맞춰 1등 없는 콘서트, 청년명사들의 토크쇼, 도심숙캠핑, 물총축제, 워터슬라이드, DJ뮤직페스티벌, 그리고 폐막공연엔 싸이가 오는 등 다채롭게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레 준비된 이 행사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광주에서 청년주도의 행사가 그동안 거의 전무했다시피 한 점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세계청년축제로서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올해는 벌써 제 4회 세계청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 광주하계유



이 축제를 통해 만나는 인연들이 축제이후에도 광주에서 전국에서 함께 협업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료가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제 4회 세계청년축제의 슬로건인 '청년은 하나다' 처럼 어찌면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거창한 청년정책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만나고 함께하며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동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니버시아드대회의 의미와 상징성을 담아내기 위해 매년 여름에 이 축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여전히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이겨 낼만한 시원한 여름컨텐츠 부족, 세계청년축제의 네이밍에 따른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모호함,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 해줘야할 예산의 부족, 마지막으로 청년스러움, 청년다움을 요구하면서 전혀 청년스럽고 청년답지 않은 행정... 정말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어찌되었든 3회부터는 사전에 청년들 중에 총감독을 선임하고 축제에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청년주도의 축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보게 합니다.



2017 세계청년축제 단체사진

올해 세계청년축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세계청년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고, 더 늦어지기 전에 '세계'만 담으려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축제가 개최되는 광주에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끝나고도 많은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될 수 있는 축제, 이 축제를 통해 광주의 청년들이 세계의 청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축제, 그동안의 청년들의 삶속에서 고민과 경험,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축제,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확장성을 가진 축제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1회부터 3회까지 진행자로 함께 했었고, 2회에는 청년도시광주의 TF위원으로 3회에는 세계청년축제 기획단으로 참여하며, 세계청년축제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단순히 치러지는 행사가 아니라 사람이 남는 축제였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 만나는 인연들이 축제이후에도 광주에서 전국에서 함께 협업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료가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제 4회 세계청년축제의 슬로건인 '청년은 하나다' 처럼 어찌면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거창한 청년정책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만나고 함께하며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동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청년 전담부서가 생겼던 광주, 그 시작의 마음이 끝까지 이어져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광주의 청년들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場, 광주시민총회를 열다!



박필순_광주시민총회 디렉터



제53회시민정치페스티벌

제53회 광주시민의날을 기념하여 금남로시민정치페스티벌이 광주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5월 22일 금남로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의 축제로 펼쳐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2회째 행사다.

금남로 시민정치페스티벌은 기획과 준비과정 행사 개최까지, 시민 참여 열망을 담아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참여민주주의 모델로 적극적 관심을 받고 있다.

시민정치페스티벌의 메인 프로그램인 ‘광주시민총회’는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민족민주화대성회의 취지를 잇기 위한 장이다.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시민총회는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주제로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발표)하고,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광장 민주주의의 형태로 5월 22일 오후 3시부터 전일빌딩 앞 무대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4월부터 ‘2018 광주시민총회 온라인 사이트(<https://521festa.kr>)’를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등록책임제, 활동하기 편한 교복 도입, 학교 미세먼지 차단 방충망 교체, 무등산 경관 가로 막는 초고층 아파트 고도제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정책, 문화도시 광주만들기 정책 등 211건의 시민정책이 제안됐다.

그 중에서 공감을 많이 얻은 5개의 정책과 5월 20일 개최된 ‘정책제안자 사전시민총회’에서 선정한 3개, 시민총회 당일 정책전시터널에서 공감스틱 투표에서 득표수가 가장 많은 2개 정책 등 모두 10개 제안이 발표됐다.

발표된 10개 시민제안은 • 뽕틀(고정관념의 틀을 뛰어넘는)놀이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 부모를 대신해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 • 저소득 청소년·청년을 위한 학업능력 및 재능 지원체계 구축! • 광주시 아챔피언스필드 주차장 여건 개선과 야구문화마을 조성 • 교복을 입고 뛰어보자 폴짝~! • 무등산 경관 가로막는, 열섬 만드는 초고층 아파트 고도 제한 • 국·영·수 교육은 그만! 꿈을 찾는 교육받고 싶어요 • 생리대 무상지원 • 5·18을 공휴일로 • 학교급식 GMO 퇴출과 광주시 먹거리 통합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3개 제안 단일화) 등이다.


시민총회장에서 발표된 10개의 제안을 비롯하여 온라인 사이트 100건의 공감득표를 얻은 37개의 정책은 광주시와 시교육청에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주주의는 마이크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광주시민총회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 제안을 통해 시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모델로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공부하고 실현하는 장이 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번 시민총회 역시 힘있는 단체나 그룹보다는 평소 가지고 있던 의견을 표출하기 힘들었던 시민층, 예로 학생들, 청년, 주부들, 작은단체나 모임, 마을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 대다수 참여하였다.

‘민주주의는 마이크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광주시민총회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 제안을 통해 시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모델로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공부하고 실현하는 장이 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시민들의 발표 제안을 듣고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521청중평가단도 모집을 통해 구성함으로써 시민정책 제안 내용을 사전에 이해하고 현장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 시민들은 준비가 되어있다.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이 적극 반영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총회와 함께 진행된 ‘시민정책마켓’은 ‘정책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규모 우수 정책을 발굴해 문화예술, 청년·여성, 사회적경제·일자리, 도시재생, 환경 등 7개 분야의 28개 정책을 한 곳에서 전시했다. 28개 정책이 골고루 2~3건의 구매약정을 했고, 대구 사회적경제 민·관정책 거버넌스, 광산구 여성친화마을 육아플랫폼 ‘마을마다 마을아이’ 정책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제는 시민들이 더 이상 행정의 객체로 머무르지 않고 당연한 주체로서 나서 직접 참여하는 세상을 열어야 한다. 시민정치페스티벌이, 시민총회가 이러한 시대적 당위를 직접 증명해 보이는 선도적인 한마당으로 자리잡아나가길 바란다. 새롭게 자치단체장이 바뀐 민선7기에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하여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문화 축제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내년을 기약해본다. 



광주시민총회 정책터널



제53회 광주시민의날 금남로 시민정치 페스티벌

광주의 오월을 걷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합니다

- 오월길문화기획단 달_comm

김꽃비_오월길문화기획단 달_comm 대표



달콤이라는 이름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광주의 오월은 모두에게 아픈 역사이자 3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광주 시민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응어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월길문화기획단 달_comm”은 광주의 오월 정신을 청년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인권과, 평화, 나눔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더 많은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단체입니다. 우리는 왜 청년들이 5·18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청년의 언어로 광주의 오월을 이야기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한 것이죠. “달”에는 달(月) 빛의 의미를, “comm”은 commune(공동체, 교감)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무빙콘서트에 사용된 수레

2013년 12월, 우리는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수레를 끌고 오월길 햇불코스를 걸으면서 각 사적지마다 헌정 퍼포먼스와 함께 꽃이 심어진 신발을 남겨두고 돌아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달콤한 오월길 Moving 콘서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문제는 오후 5시 18분부터 새벽 5시 18분까지 오월길을 걸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레는 먼저 끌던 사람이 지치면 다음 사람이 교체해주는 식으로 모두가 돌아가면서 끌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햇불코스를 ‘모두’ 걷는 것은 마치 고행과도 같았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번갈아 가며 걸어야 했고, 대인지하차도를 지날 때는 수레를 직접 들고 지하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광주역에서는 모두가 가면을 쓴 배우가 되어 연기도 해야 했고 잠을 자지 못한 채로 걷다보니 체력적으로도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12시간의 걷기 대장정을 끝낸 우리가 분명하게 결심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월의 이야기를 간직한 공간들을 걸 위에서 마주하며 경험한 그날의 아픔과, 또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치유의 감정들을 더 많은 청년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닌 현장 속에서 마주한 그 감정들을 보다 많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1 2013 달콤한오월길 Moving 콘서트 2 오월수레 제작모습 3 오월수레 오늘을 걷는다 퍼포먼스 모습 4 퍼포먼스가 끝난 뒤 단체사진

그 뒤로 수레를 끌며 오월길을 걷는 퍼포먼스는 달_comm의 대표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비엔날레 20주년 특별프로젝트 오월길 길곤 퍼포먼스>를 비롯해 <달콤한 의자 프로젝트>, <달콤한 오월길 Moving 콘서트> 등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월길을 걸었습니다. 2016년에는 사전 모집된 참가자들과 함께 오월의 상징을 담은 5개의 수레를 만들고 이 수레와 함께 오월길을 걸으며 당시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장소특정형 퍼포먼스 <오월수레 오늘을 걷는다>를 임인자 감독님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만들어진 오월수레들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진행한 순회전시 때 함께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의 오월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청년들과 함께 해시태그 메이비(#MayBe)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 나오는 오르골을 제작한 “그라제”, 오월 안부 엽서를 제작한 “왕꽃”, 오월길페스티벌

을 기획했던 문화기획단 “유별나”, 오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블스” 등등 다양한 팀들과 함께 오월을 기억하기 위한 청년들의 느슨한 연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아 어떤 모임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광주의 오월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함께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월길문화기획단 달_comm은 앞으로도 계속 광주의 오월을 새롭게 걷는 방법을 고민할 생각입니다. 더욱 다양한 세대가 광주의 오월을 함께 기억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연 속으로

인간 욕망의 과거, 현재, 미래

- 셰익스피어와 전통의 만남 '두드려라, 맥베스'



김정희_ 시인, 본지 편집위원장

인간 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이야기를 만들어 내지 않는 곳이 없다. 이야기는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야기 하는 원숭이' 라는 말도 생겨나지 않았을까.

'한 시대가 아닌 만세를 위한 이야기꾼' 이자 현재까지 세계 최고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의 4대 비극 "맥베스"의 스토리텔링을 한국전통 연희와 접목시킨 '두드려라, 맥베스!' 를 관람했다. '맥베스' 는 인간이 서서히 타락하는 과정과 파멸을 묘사한 작품들의 원조격이다. 4대 비극의 특징은 각자 주인공들이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인데 맥베스는 바로 헛된 야망으로 인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두드려라, 맥베스!' 는 권력을 향한 맥베스의 붉은 눈을 통해 현대인들의 끝없는 욕망과 어리석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에는 중간 중간 난타용 대북을 두드리며 무대를 가득 채우는 장면이 나온다. 이 두드림은 관객들에게 전쟁의 치열함과 심장의 박동, 즉 생존의 울림을 느끼게 해주는 장치로 보인다.

첫 무대는 정면에 고색창연한 두 개의 문짝 형태의 조형물이 비쳐지면서 작품이 한국적인 텍스트로 재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객석 전면 중앙에 레이디 맥베스가 등장해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를 반복하며 남편의 승리를 기원하는 모습이 나온다. 돌이켜보면 그녀의 기원은 욕망에 사로잡힌 남자의 여인으로서 삶의 고단한 그리움과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여인상을 떠오르게 한다. 레이디 맥베스의 모습이 사라지면 난타용 대북과 그 옆에 재래식 북 연주석이 보인다. 그리고 난타용 대북이 무대 중앙에서 잘 연습된 각도와 정확한 손동작으로 웅장한 두드림을 한바탕 연주한다. 전쟁의 소란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상황을 재미난 이야기?로 전환하는 결정적 요소로

충분했다. 줄거리를 생략하며 원작보다 숨가쁘게 전개되는 타악의 연주는 영혼을 부르는 소리로 관객을 무대 속으로 함께 흐르게 했다. 반란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두 장수 맥베스와 벵코우가 아들 맥다프를 데리고 등장해 기쁨을 나누고 상대에게 전쟁의 성과와 미래를 예언하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말의 뿌리엔 생각이 있고 생각의 뿌리엔 욕망이 있다’ 두 장군은 도총관이 되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나라의 최고 권력자, 왕이 되었으면 하는 야심을 드러낸다. 연극 ‘두드려라, 맥베스’는 원작에서 다뤄졌던 마녀로 인한 인간의 욕망과 파멸을 현대사회에서 경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각축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해 재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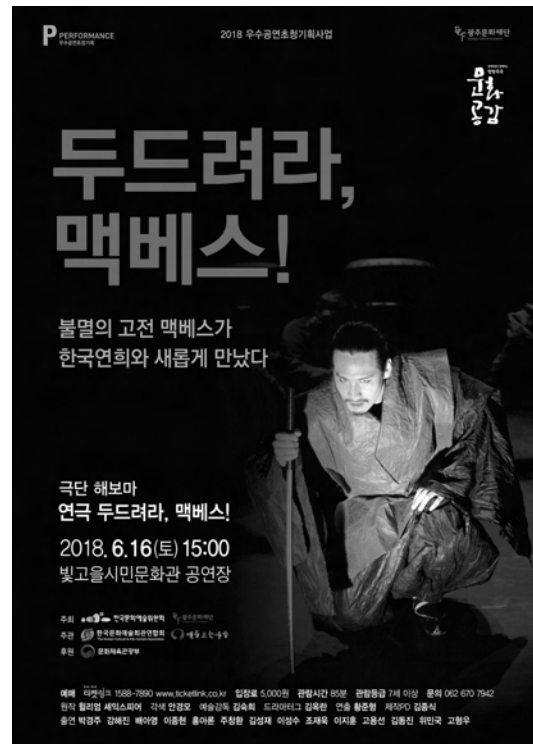
남편이 도총관이 되자 야심만만했던 레이디 맥베스는 맥베스에게 왕을 죽이도록 회유하고, 결국 예언에 홀려버린 맥베스는 자신의 성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왕을 칼로 살해하고는 그 죄를 숨취한 경비병들에게 뒤집어 씌워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 버린다. 이후 맥베스는 왕의 아들들을 추방하고 왕위에 오른다. 마녀의 예언을 들은 벵코우는 왕위에 오른 맥베스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그러나 맥베스는 벵코우가 장차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또 다른

예언을 두려워한 나머지 암살자를 보내 그와 그 어린 아들인 플린스를 죽이려 시도한다. 벵코우는 살해당했으나 플린스는 살아남아 도주한다. 이후 왕위를 지키기 위해 피투성이 길을 가면서, 맥베스는 환영을 보는 등 광기에 물들어간다. 레이디 맥베스도 몽유병에 시달리다가 광기를 보인다. 유일한 여자 배우인 그녀의 연기는 공연 내내 흔들림 없이 빛났다. 특히 마지막에 독백을 하며 무대를 헤매는 연기는 광풍 같았다. 극 중간 중간 무대에 줄지어 두드리는 대북과 큰 심벌즈로 전쟁과 대립을 표현하는 연출-사자놀이, 깃발춤과 갈춤의 조화는 속도감과 긴장감, 전통 음악에 스민 한의 정서를 객석에 충분히 전달해 주었다. 그리고 무대 한편에서 혼자서 여러 악기로 모든 소리를 만들어주신 소리장인 여자분은 무대가 끝났을 때 특별한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연출가는 맥베스의 권력에 대한 욕망은 자기 결핍과 자기 갈망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환영과 환청, 자기 분열로 짐승되어 파멸에 이르는 심리를 묘사했다는 연출의도를 밝히고 있다. 원작에서도 널리 회자되고 있는 왕의 대사 - ‘얼굴만 보고는 마음의 본성을 알 수 없다’ 와 ‘해치워버릴 때 그것으로 일이 끝난다면, 얼른 해치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맥베스 원작에서 기억에 남았던 몇가지 고귀한(?) 명대사는 조금 아쉬웠지만 ‘두드려라, 맥베스!’ 는 끝도 충분히 아름다웠다.

오손웰스, 구로사와 아키로, 로만 폴란스키 등의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 성공을 거두기도 했던 맥베스- 또한 주세페 베르디가 작곡한 오페라도 기억의 창고에서 가만히 들추어 본다. 그리고 또 다른 감독의 ‘두드려라 맥베스!’ 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행한 다른 현실이 아닐까.

사람들이 열심히 행복을 찾아 헤매야 하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절망의 사회라고. “친구를 사랑하고 적을 미워하며 죽노라” 철학자 볼테르가 생전에 써놓고 죽었다는 묘비명을 생각한다. 어떻게 살고 왜 살아야 하는지... 태어나 살다 죽는 것이 인간이지만 탐욕스러운 인간의 욕망은 그 야만에 어떤 형벌로 짐을 지울까. 연극을 보면서 경쟁과 성취 보다 삶의 기쁨과 정의를 위한 당신의 희망을 응원해 주고 싶다 생각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기회가 오면 당신도 꼭 객석에서 ‘인생이 왜 걸어가는 그림자’ 인가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



두드려라, 맥베스! 포스터

책을 말하다

별서원림, 소쇄원을 읽는 현재적 시선

- 가득찬 치유의 공간을 사랑하는 법



김정희_ 시인, 본지 편집위원장

내가 이 책을 받은 것은 지난 4월이다. 휴대전화에 찍힌 부재중 전화에서 천득염 교수님의 번호를 찾아 의아해하며 통화를 했다. 내용은 책을 내셨는데 잘(?) 읽어줄 독자라 생각해 특별히 보내 주시겠다며 주소를 알려달라는 말씀이셨다. 참으로 감사하고 황송했다. 당시는 사정상 제주에 머물고 있었지만 광주 집의 주소를 드렸다. 그렇게 책이 도착한 한참 뒤에야 '소쇄원' 그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슐라르의 말처럼 기억을 생생히 떠올리며 느리게 조심스럽게 떠났다.

'꾸민 듯 꾸미지 않은 한국의 전통 민간원림, 소쇄원'이라는 표지글처럼 소쇄원은 자연과 인간의 꿈이 만나 무위자연 을 지향하는 이상향의 공간을 이룬 곳이다. 소쇄(瀟灑)란 이름은 중국 남조시대 제나라 사람 공덕장이 쓴 「북산이문」에 처음 나오는 말로 '깨끗하고 시원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소쇄원은 조선 중종 때 조광조의 제자였던 양산보가 기묘 사화(1519년)로 스승이 죽자 낙향한 뒤 1530년대에 짓기 시작해 손자대에 완성했다. 소쇄원의 이름을 풀어쓴다면 '물 맑고, 시원하며 깨끗한 원림' 이 된다. 명승 40호로도 지정된 이곳은 당시 양반계층이 선호했던 계곡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외와 순응, 도가적 삶을 산 조선시대 선비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서 경관의 아름다움이 가



소쇄원도



대봉대에서 바라본 소쇄원

장 탁월하게 드러난 문화유산의 보배이다.

저자는 1999년 『한국의 명원 소쇄원』이라는 개론서를 내고 17년 만에 그 후의 연구 결과를 담아 증보판을 발간했다. 책은 부록 외에 총9장으로 나누어 제1장에는 서설에 해당하는 우리는 왜 소쇄원을 칭송하는가, 우선 소쇄원을 보고 느끼자, 소쇄원의 의미, 소쇄원의 조영시점 등을 담았고 이밖에 500년 전 소쇄원을 만든 양산보(1503~57)의 파란만장한 일생과 행적, 당시 사회상, 이후 가계도를 정리했다. 또한 소쇄원의 시작과 변화, 구성요소와 공간체계를 중심으로 문헌 자료와 연구 성과 등을 두루 다뤘고 이곳을 주유했던 하서 김인후, 제봉 고경명, 우암 송시열 등 기라성 같은 호남사림의 인물과 당대 시단, 문인들의 면면을 일화와 시문으로 추가했다. 더불어 「소쇄원도」(1755년)를 비롯해 그림·도면·사진 300여 장은 소쇄원림에 퍼지는 소리와 빛을 붙잡아 공간을 밀고 당기는 또 하나의 풍경으로 생생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저자인 천득염 교수는 이 공간을 마치 도인들이 살았던 곳으로 해석해 소쇄원에 대해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선입견을 갖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견해도 적었다. 소쇄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적 사실과 인물, 당대의 사회적 현상에 충실해야 하며 그런 후에 공간에 대한 관념적 해석이나 은유적 의미를 탐구할 것을 권한다. 우선 있는 그대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현상에 대해 받아들이고 즐긴 후 차츰 관심을 확대하자는 말이다.

소쇄원은 입구의 대숲 사이 오솔길에서부터 그림 같은 다리를 건너 계곡으로 이어지는 원림(인공이 절제되고 자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조경 공간)의 높낮이 덕분에 빼어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사랑채 공간인 광풍각과 뒤뜰의 복숭아나무, 봉황을 기다리는 그리움의 눈빛이 머무는 대봉대, 작은 연못, 푸른 달빛에 흔들리는 산그림자 머무는 제월당, 물레방아...

저자는 과거엔 은일의 공간이었던 소쇄원을 이제 햇살·바람·소리 등을 눈과 귀로 감상하며 마음을 열어가는 ‘치유의 정원’으로 재조명해보는 등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적었다. ‘정원’과 ‘원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한 어원 설명을 통해 원림은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어느 용어보다도 가장 많이 쓰였고 진귀한 짐승과 새를 길렀고 숲이 있었다하여 정원(庭園)과 같은 뜻으로 해석했다. 소쇄원은 살림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치 좋은 곳에 조성된 정원으로 전원생활과 문화생활을 함께 한 공간을 말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쇄원의 조영 시기에 관해 최소한 1520년 대 중반 이후부터 소쇄정이라는 소쇄원의 초기 형식이 있었고 1530년대 중반에는 소쇄원이라 불리고 지금의 모습처럼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소쇄원의 여러 공간들은 감각적이고 구조적인 시슬로 이어지는 풍경을 보여 주는 것과 동시에 가까운 외경을 끌어 들여 상호 관계를 맺고 자연의 햇살과 명암, 색깔의 변화를 통해 산과 물, 나무, 바람의 조화를 보여 주는 ‘조선 최고의 원림’, ‘동양 건축의 백미’다. 그렇다. 유월 어느 날 당신도 이곳이 아닌 다른 곳, 우리들의 오래된 미래가 보이는 소쇄원의 숲으로 떠나자. 너무 늦기 전에. ♪



1 천득염 2 『소쇄원』

문화, 생각만 해도 설레는 말

- NGO스쿨을 진행하며



이지은_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간사

문화관련 일을 하고 싶었다.

2015년 가을,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문화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그 생각 하나로 문화관련 단체를 찾았고, 2016년 4월부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에서 일하게 됐다.

사실 재단에 지원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문화단체였지만 구인 분야가 '회계' 였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내내 수학을 커녕 산수와도 친하지 않아 회계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회계를 못해도 인연이 있으면 되겠지' 하며 지원했고, 면접 후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시간은 마치 날개를 단 듯 빠르게 흐른다. 재단에 입사한 지도 벌써 3년째다. 업무를 배우는 정신없던 시기가 지났고, 여전히 실수도 하지만 나름 잘 적응하고 있다. 업무에 대한 여유가 생겨서일까. 입사 때 가졌던 문화에 대한 꿈과 미래에 대해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 현재 하는 일은 재단 운영에 관한 업무나 프로젝트 사업의 보조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광주NGO센터에서 운영하는 NGO스쿨 프로그램을 만났다. NGO스쿨은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가에게 7개월간 교육비를 지원해 신입 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문화기획과 운영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터에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NGO스쿨은 최적의 프로그램이라 느껴졌다.

NGO스쿨에 지원하며 세 가지 교육계획을 제출했다. 첫 번째는 멘토와의 만남이다. 월 1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지역문화의 이해 폭을 넓히고 문화 활동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첫 번째 멘토로 놀이패 '신명'의 정찬일 대표를 만났다. 정찬일 대표는 올해 맡았던 5·18 전야제 총감독 이아기부터 '신명'을 통한 지역 문화운동의 역사와 현재, '신명'과 함께해온 본인의 문화 활동 발자취까지 들려주었다. 또한 그동안 문화단체에서 일 하며 느낀 고민과 고충을 털어놓고 자문을 구한 귀한시간이었다.

두 번째는 국가기관과 지역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강좌 및 문화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참여다. 온라

두 번째는 국가기관과 지역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강좌 및 문화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참여다. 온라인강좌는 한국콘텐츠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문화일반에 대한 강의를 수강한다. 콘텐츠와 내용이 잘 되어있고, 문화콘텐츠의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저작권 보호 등 평소 부족하다고 느꼈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 좋다.

인강좌는 한국콘텐츠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문화일반에 대한 강의를 수강한다. 콘텐츠와 내용이 잘 되어있고, 문화콘텐츠의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저작권 보호 등 평소 부족하다고 느꼈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 좋다. 더불어 6월부터는 광주문화재단의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문화기획서 작성, 프로그램 홍보 등 문화현장에 필요한 핵심 업무를 배우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은 실무 참여다. 재단의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협의체 사업의 기획과 실행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실무적인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지난 4월부터 12차시동안 진행한 교육프로그램은 보조강사로 참여하며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업 진행에 임했다. 앞으로 진행될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정책포럼 역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더 깊이 있게 사업을 이해하고자 한다.

문화, 듣기만 해도 설레는 단어다. 이런 설렘으로 일할 수 있어 항상 감사하다.

남은 NGO스쿨 프로그램 기간 동안 문화기획자로서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고 역량을 키우는데 힘써야겠다. 언젠가는 재단 주요 사업의 기획과 실행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기획을 꿈꾸어본다. ♪



1 이지는 간사 온라인 강좌 수강 후 수료증과 함께
2 이지는 간사 6·13문화정책 연대회의 참석
3 이지는 간사 인문학 강좌 보조강사 활동

스텝이 꼬이면 그게 바로 탕고!

- 도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미리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최진실_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청년인턴

청년드림사업이란 무엇인가?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정책 방안 중 하나인 청년드림사업이란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과 함께 생활임금으로 측정된 구직비용을 제공함으로써 구직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청년정책사업입니다. 공공기관형, 기업형, 사회복지형, 사회적 경제형, 청년창업기업형, 청년활동형 총 6개 유형에서의 일자리 직무경험이 가능하며 청년들 스스로가 선택한 일자리 유형의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각 기관에 배치됩니다.

청년드림사업에 지원하게 된 계기

취업과 재정 문제는 저와 같은 나이 또래의 구직 청년들이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해요. 졸업 후 해가 갈수록 금전적인 부담감은 점점 더 커지고 주변의 압박도 심해지니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저도 똑같았어요. 졸업 후 1년 동안의 인턴 기간을 끝마치고 나니 할 게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스펙이란 걸 쌓으며 취업 준비를 하자니 목표부터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치 않게 청년드림사업 정책에 대한 포스팅을 읽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게 됐어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청년활동형)을 선택한 이유

청년드림사업에 참여한 우리가 드림청년이라 불린다면 광주시청과 협약하여 일자리 직무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을 드림터라고 불러요. 면접은 이를 동안 광주시청에서 진행됐고 상상하던 딱딱한 분위기의 면접장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일자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공동 면접장 형식이었어요. 청년이 관심이 가는 유형의 담당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와 맞는 드림터를 찾아 면접을 보면 되는 자유로운 시스템이었죠.

청년드림사업에 참여한 우리가 드림청년이라 불린다면 광주시청과 협약하여 일자리 직무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을 드림터라고 불러요. 면접은 이를 동안 광주시청에서 진행됐고 상상하던 딱딱한 분위기의 면접장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일자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공동 면접장 형식이었어요. 청년이 관심이 가는 유형의 담당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와 맞는 드림터를 찾아 면접을 보면 되는 자유로운 시스템이었죠.

저는 전에 인턴을 했던 곳이 공공기관·기업형 같은 분위기가 색다른 일에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인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공공기관형이 아니라 청년활동형을 선택한 이유도 단순히 내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알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 같아요. 청년활동형으로 마음을 굳히고 직무경험을 하게 될 드림터를 선택하던 과정에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을 알게 됐어요. 문화기획과 관련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가 보니 처음에는 재단 이름부터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어요. 내가 과연 문화기획 및 시민단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한편으론 지역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와 지역 문화를 위해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고민 끝에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을 선택해 면접을 보게 되었고 운 좋게 합격하게 되어 4월부터 재단과 함께 일하게 됐어요.

재단에서의 직무경험을 통해 느낀 점

모두들 그렇겠지만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일에 뛰어들다는 생각 때문에 첫 출근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다행히 모두 친절하게 해주셔서 재단 분위기에 금방 적응하긴 했지만 업무에 관해서는 계속 걱정을 했던 거 같아요. 기획서 또는 기획안을 작성해 본 적도 없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간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이끌어내야 하는 재단 직무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예정되어 있던 재단 프로그램 일정을 추진하고 옆에서 재단 업무를 보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을 습득해나가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단 일정을 진행하면서 재단 회원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다들 적지 않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지역 문화와 예술에 대해 학구열을 불태우시는 걸 보고 안일하고 나태하게 살았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전반적으로 4월 말에 재단에서 실시했던 인문학 교육을 통해 실무적인 일도 배우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사실 초반에는 청년활동형을 선택한 거 자체를 후회할 때도 있었어요. 수동적인 업무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 처음 도전해보는 일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고 외향적이지 못한 성격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바심을 내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인생에 도움이 되는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4개월이라는 인턴 기간이 처음에는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너무 짧게 느껴지고 떠날 생각을 하니 벌써 아쉬워요. 다들 너무 좋은 분들이라 인턴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재단 식구들과의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어요. ^^

2018청년문화일자리 시범사업과 청년인턴의 삶



박청하_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청년인턴



박청하 인턴 재단 주최 강좌 스텝으로 활동

2018 청년문화일자리 시범사업'이란 무엇인가?
문화예술 단체에 미취업 청년을 배치하여 직무경험과 예술역량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하는 사업이다. 또한 단체는 부족한 인력을 지원받아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여 '2018 청년문화일자리 시범사업'을 광주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는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청년 또는 문화·예술관련 일자리를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현장감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무경험을 쌓

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광주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지역으로 인력이 유출 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지역사회에 있어 선순환적인 일자리사업의 모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18 청년문화일자리 시범사업'을 지원하게 된 동기

건축학부로 대학 졸업 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회복지 일을 1년 반 정도 하였으나 일 하는 내내 나와는 다소 맞는 분야가 아님을 몸소 체험하였다. 회사를 다니면서 적성에 맞지 않는 분야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방향의 일을 배워보고자 찾아보던 중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사업인 '2017유망주'에 지원하여 교육을 수료할 수 있었다. '2017유망주' 사업은 9개월 간 청년 문화기획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고자 이론과 실무 교육을 통해 성장해왔다. 하지만 9개월간의 교육 끝에 구체적인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문화기획이라는 분야를 내가 계속 해나가야 하는지 조차 고민 중에 있을 때 "광주 청년 드림사업"에 참여하였고, 면접에 합격해 드림 청년으로서 '광주청년센터the숲'에서 일 경험을 하였다. 그러던

내가 느끼고 생각한 연대 모임은 지역사회에서의 연대모임을 통해 “우리지역이 <문화도시 광주>로서의 역할이 잘 되어 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과 물음에 대한 방법을 찾고 광주의 문화정책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의논하고 제언하는 활동, 이후 제언한 정책에 대해서 이행되는지 주의·주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느꼈던,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 지역인 문화수도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 되었다.

중 우연한 기회로 ‘2018 청년문화일자리 시범사업’ 공고를 알게 되었다. 문화·예술관련 일자리를 꿈꾸는 청년인 나에게 현장감을 습득하고 실질적인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고 좋은 기회를 판단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박청하 인턴 회의 참석

인턴생활은 어떠한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직 많은 경험을 쌓기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이지만 한 달여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경험 중이다. 그 간 내가 경험한 재단 내에 일 경험은 크게 지역문화 담론사업과 시민문화교류사업, 회원(조직)사업, 문화담론지 『창』의 편집·출판사업, 연대사업 등의 사업이 있다. 내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문화담론사업으로 ‘6·13지방선거 문화정책 연대’ 모임에 참여하거나,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한 연대 모임은 지역사회에서의 연대모임을 통해 “우리지역이 <문화도시 광주>로서의 역할이 잘 되어 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과 물음에 대한 방법을 찾고 광주의 문화정책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의논하고 제언하는 활동, 이후 제언한 정책에 대해서 이행되는지 주의·주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느꼈던,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지역인 문화수도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 되었다. 그 외의 일 경험들은 아직은 참여하기 보단 참관을 하며 사업의 목적과 취지, 진행 절차 등 파악하고 재단 내의 회원구성, 재단 외에 교류 단체 회원과 사업내용 등을 파악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아직은 미숙하고 배울 것이 많지만 꾸준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내 것으로 습득하여 재단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다.

구직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세상을 넓고 길(할 일)은 많다.” 관심이 있으면 시작하고 그 일을 하다보면 길은 열린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아직 이론 것이 없고 갈 길이 멀지만 이 넓은 세상에 내가 갈 길(할 일) 하나 없겠냐는 생각으로 우선은 주어진 하루 하루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려한다. 열심히 살다보면 골목길이든 대로든 길은 나오겠지…… 그럼 내 먹고 살 길 하나 나오지 않겠는가? ^^

재단소식

[재단소식]

• 사업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사업 제1차 자문회의 열어



2018년도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사업의 제1차 자문회의가 백수인 이사장과 김덕진 책임연구원(광주교육대 교수)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노성태 국제고 수석교사, 이동순 조선대 교수, 이향준 전남대 교수,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12일 오후 5시 재단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자문회의는 백수인 이사장의 인사말과 김덕진 책임연구원의 경과 보고 그리고 위탁사업을 맡은 (주)위치스 김선형 총괄이사의 착수 보고를 듣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는 순으로 진행됐다.

자문위원들은 • 광주역사문화자원 및 스토리 콘텐츠의 관문 역할에 맞는 홈페이지 개편 • 주제에 따른 가이드라인 설정 및 스토리 중심의 역사문화지도 제작 • 웹툰 50편 선정 시 예비자료 확보 • 시나리오 구성 및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작가 투입 •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웹툰 제작 시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평생교육 인문강좌 ‘광주역사문화자원이 인문학을 만나 소통의 문을 열다!’ 성황리에 마쳐

우리 재단은 ‘광주역사문화자원이 인문학을 만나 소통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4월 25일(수)부터 6월 1일(금)까지하여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과 광주 일원에서 12차시에 걸쳐 강의와 답사를 병행하는 시민강



좌의 수료증 수료하며 성황리에 ‘광주역사문화자원이 인문학을 만나 소통의 문을 열다!’ 인문학교육을 종강하였다.

이번 강좌는 광주의 역사문화 강의와 함께 시민이 직접 광주의 이야기를 찾아 나서고 이를 SNS를 통해 소통하는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광주역사문화자원을 매개로 ‘광주’를 새롭게 재발견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나와 가족, 이웃, 동네,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찾고 알리며, 시민강좌가 끝난 후에도 수강자들의 배움이 지속 될 수 있도록 동아리를 결성하였다.

동아리의 이름은 ‘광·찾·사’(광주역사문화 이야기를 찾는 사람들)이며, 광주 역사문화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찾고, 그 속에서 지역민과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학습동아리로 광주 및 인근 지역을 답사, 조사, 탐구하여 함께 공유하는 모임을 지속해 갈 예정이다.

강좌 프로그램은 제1강좌 4월 25일(수), 도시와 인문학의 만남(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 제2강좌 4월 27일(금), 광주문학 100년(이동순 조선대 교수) • 제3강좌 5월 2일(수), 5월과 사진 그리고 SNS(김향득 사진다큐작가) • 제4강좌 5월 4일(금), 도시의 기억찾기(박흥근 건축사) • 제5강좌 5월 9일(수), 세상과 만나는 새로운 창, SNS(김꽃비 소통마케터) • 제6강좌 5월 11일(금), 골목의 인문학, 양림동을 걷다(정광민 건축사) • 제7강좌 5월 16일(수),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노성태 국제고 수석교사) • 제8강좌 5월 18일(금), 광주공원 사직공원의 문화원형(노성태 국제고 수석교사) • 제9강 5월 23일(수), 광주 이야기 여행(전고필 대인예술시장 총감독) • 제10강 5월 25일(금), 광주스토리텔링1-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김인정 작가) • 제11강 5월 30일(수), 광주스토리텔링2-살고 싶은 도시 그리기(김인정 작가) • 제12강 6월 1일(금), 이야기로 성공한 도시와 광주 이야기(안태기 광주대 교수) 등의 차례로 진행되었다.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4' 성료



열띤 호흥속에 개최된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4'가 지난 4월 3일 제6강 '호남 서예가 열전'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다음을 기약했다. 전례없이 매 강좌마다 12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는 등 회차를 거듭할수록 호남을 주제로 하는 인문강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느껴진 강좌였다.

시민강좌의 주제로 전라도 천년을 맞는 호남지역민의 삶과 문학, 서예 등의 예술, 비전 등을 다루었으며, 역사 속의 장애인의 삶과 한국인의 뿌리인 족보 등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이번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는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 집대성, 콘텐츠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를 주제로 진행해오고 있다.

• 연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기자회견

우리 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 시민연대'가 지난 5월 24일(목) 오후 3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연대는 '조성사업의 중요한 고비마다 시민사회의 이해요구가 달라서 지역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던 것을 성찰하고, 시민인 주체가 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역의 100여 개 시민사회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여 구성한 연대기구이다.



한편 시민연대는 회원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성사업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시민연대의 입장을 마련하고, 이틀 내내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제4차 집행위원회 열려



우리 단체가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제4차 집행위원회가 지난 5월 8일(화) 11시에 광주장애인미술협회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6·13지방선거문화정책연대 사업 후속 조치 건, 문화도시활성화포럼(201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우선 6·13지방선거 이후 연대기구의 지속적인 활동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게 본 협의회의 정체성과 연계하여 후속조치가 진행되도록 제안하고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정기로 하였다. 또한 문화도시 활성화포럼은 6·13지방선거 연대활동의 연계와 시기적 특성을 감안하여 포럼 주제와 프로그램을 기획하되, 가능하다면 상상빛, 광주예총, 광주민예총과 공동 연대하여 포럼을 개최하고, 본 협의회에서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마당, 얼썬가 공동 기획회의에 참여기로 했다.

재단소식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제3차 집행위원회 개최



우리 단체가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제3차 집행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화) 11시에 윤상원 기념사업회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201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은 각 사업별로 회원단체가 참여하는 준비팀을 구성하고, 본 협의회 주최, 회원 단체 주관방식으로 진행키로 하였다. 또한 6·13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정책은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전에 제안키로 하고, 선거 이후에도 정책 수용 촉구 및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한편 광주ngo센터가 주관하는 2018 민관합동워크숍에 협의회는 적극 참여키로 하고, 엄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 공동대표를 협의회 대표로 참여토록 결정하고, 필요시 이지은 간사가 함께 참여키로 의견을 모았다.

• 조직

2018년도 제3차 정기 운영위원회 열고, 문화도시 활성화 포럼 개최 등 논의

2018년 제3차 정기 운영위원회가 지난 5월 28일(월) 18시 30분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안태기 부 운영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문화도시활성화포럼 개최 건 •2018 회원확대운동 참여 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문화도시활성화포럼은 임원회의에서 프로그램을 논의한다는 전제하에 사무처 제안대로 추진하되 민선 7기에 제안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재단의 공감대 부족을, 향후 유사한 사업의 추진시에는 기획, 프로그램 구성, 집행 과정이 내실을 기하도록 주문하였다.

또한 2018년 회원확대운동은 후원이사회와 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기한 내에 목표가 달성되도록 운영위원회도 적극 참여키



로 하였다.

한편 오는 6월 2일에 개최되는 회원 만남의 날 프로그램에 가능한 많은 운영위원이 참여하여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보성 다향대축제’ 문화번개팅 갖고 소통과 교류의 시간 가자



지난 5월 19일(토) ‘보성 다향대축제’ 문화번개팅이 임·직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문화 번개팅은 재단 부운영위원장 “안태기교수와 함께하는 축제나들이”를 주제로 보성 다향대축제에 참여하였으며, 행사 프로그램

즐기기 및 재단 임원간 소통과 교류의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2018년 제2차 후원회 이사회 개최, 회원 확대 및 회원사업 활성화 방안 등 논의

2018년 제2차 후원회 이사회가 지난 4월 23일(월) 18시 30분에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성 후원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모임에서는 •2018 회원 만남의 날 •2018년 회원확대운동 •재단 회원 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2018년 회원 만남의 날은 오는 6월 2일(토) 김강균 운영위원이 대표로 있는 대촌커뮤니티 센터에서 문화가 있는 어울림(가제)이란 주제로 개최키로 하였다. 또한 2018년 회원확대운동은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전체 임원이 참여하는 1+2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이사장님과 후원회장 명의로 협조 요청을 발송키로 하였다.

한편, 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교류를 위한 문화번개팅은 안태



기 교수의 제안으로 오는 5월 19일(토) 보성 다항대축제를 탐방기로 하였으며, 최소한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의 10%는 회원에게 직접적인 감사의 마음을 전달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하였다.

2018년 제4차 재단 정기 임원회의의 열고, 신입회원 확대운동 전개키로



2018년 제4차 재단 정기 임원회의가 지난 4월 19일(목) 18시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회원 만남의 날, 2018년 신입회원 확대운동 건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회원 만남의 날은 오는 6월 2일(토) 개최키로 제안하고 장소와 프로그램은 후원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2018년 회원확대운동은 전체 임원이 참여하는 1(임원 자동이체)+2(두명 추천)운동과 이를 기반으로 정기 임원회의에 참여하는 임원은 평생회원을 추천하여 1+1+2 운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한편,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의 10%는 회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후원이사회에서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을 권고키로 하였다.

재단 임원 불나들이, 양림동과 문화전당 일대에서 개최



재단 임원 불나들이가 지난 3월 24일(토) 20명의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올해 초 재단의 조직 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 임원 환영과 친목도모를 겸해 열린 행사로 양림동~문화전당~동명동으로 이어지는 도시의 맛과 멋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

[회원소식]

이이남 회원, '미디어아티스트, 러시아에 한국 현대미술 알린다' 7월 14일까지 MARS 미디어아트센터서 개인전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7월 14일까지 러시아 마크 미디어 아트 센터에서 'A Path to Peace'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지난 5월 이 작가가 러시아에서 선보였던 그룹전과 개인

회원소식

전이 호평을 얻으면서 러시아 측 요구로 개인전을 2달 연장하기로 했다. 이 작가는 연장된 이번 개인전에서 겸재 정선이 느꼈던 천지지미(天地之美)를 시물라크르로 재해석해 디지털 속의 가상 현실의 공간으로 다시 생생하게 드러낸 '박연폭포'를 선보인다. 또한 4·27남북정상회담에서 서로 닿을 수 없는 산과 산을 현대적인 이미지를 통해 연결, 남과 북이 평화로 소통하는 모습을 담은 8폭 병풍 중 '4·27 평화, 새로운 시작-단발령망금강' 등을 출품한다. 이이남 작가는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예술 교류 전반을 조망하고, 두 나라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전남일보> 발췌

허달용 회원, '산이 된 바보'展 6월 13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열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9주기를 추모하는 전시 '산이 된 바보'가 광주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소촌로 85번길 14-9) 큐브미술관에서 6월 13일까지 열린다. 전시는 소촌아트팩토리의 기획전시 시리즈이자 '광산아트플러스'의 두 번째 행사로, 전시 관람객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한 허달용 화백의 다양한 '민중수묵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림 한 폭 안에 날선 현실 비판과 따뜻한 서정을 동시에 담아내는 민중수묵화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자신의 화두인 화해와 공존, 희망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전시의 백미는 노 대통령의 죽음을 담아 한지에 수묵 채색으로 그려낸 허 작가의 대작 '산이 된 바보'다.

2009년 노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슬픔으로 한동안 붓을 잡을 수 없었던 허 화백이 마음을 다잡고 단숨에 그렸다는 수묵화다. 작가는 "그린 것이 아닌, 무엇에 흘려 그린 듯 누가 내손을 빌려서 한 것처럼 그려졌다"고 작품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현재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회장, (사)민족미술협회 회원, 연진회 회원, 광주시립미술관 운영 자문위원으로 사회활동과 예술작업을 병행해오고 있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정현애 이사, 오월어머니집 이사장 5월 항쟁 '민주공화국 토대 될 수 있겠다' 생각 자부심

"오월 어머니집은 1980년을 전후해 자식·남편을 잃거나 구속된 가족의 생사를 찾아 헤맸던 수많은 여성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의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뜻깊은 공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 오월어머니집 이사장을 맡은 그녀는 오월 어머니집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 고민을 털어냈다. 피해 당사자인 오월어머니들의 회비와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근근이 운영 하고 있다. 어머니집을 찾는 대내외의 손님들을 접대하고 수용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 이사장은 "오월 어머니집은 80년에 가족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어머니들의 단순한 의지처가 아니라 1980년을 전후한 광주 여성들의 고난과 고난을 극복해온 과정을 시민과 광주를 찾는 분들과 공유하는 공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5월의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한다.

김선출 회원(전 이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임명

광주전남문화연대 대표를 역임한 김선출(사진) 씨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임기는 2020년 5월 3일까지 2년이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최근 김 씨를 상임감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선임 상임감사는 광주전남문화연대 대표, 광주매일신문 논설위원, (재)지역문화교류재단 이사, (사)광주민중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 <광주일보> 발췌

이동순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장, 격동의 역사서 스러진 지역 작가 발굴·조명

- 이동순 조선대 교수, 조운·조남령·조희현 전집 발간
작품 원문 그대로 살리고 생애 문학세계 복원 '성과'

일제강점기 투철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시단에 뚜렷한 획을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 문인이라는 이유로 잊혀졌던 시인인 조운과 조남령, 조의현 등 영광지역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총망라 한 문학전집이 나와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지역 문학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동순 조선대(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최근 발간한 '영광문학총서'를 통해 월북작가 조운과 조남령, 조의현의 작품세계를 그린다. 또 세 시조 시인들의 문학사적 의의를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월북작가인 조운 등 문학작품은 일부 연구되기는 했지만 문학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이 교수는 이번 '영광문학총서'에서 조운 등 세 시조 시인들이 영광이라는 지역적 공통점 이외에도 조운의 주도 아래 영광민립중학교 설립을 통해 민족의 계몽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쓴 문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고 지역 최초로 영광이 배출한 문학가들을 묶었다.

- <무등일보> 발췌

김덕진 이사, 광주교육대 교수 『전쟁과 전라도 지역사』 책 펴내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가 14~17세기 전라도 지역사를 기록한 『전쟁과 전라도 지역사』를 펴냈다. 조선 후기 경제사 연구와 호남 지역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책을 펴냈던 김 교수는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민족사의 전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전쟁사에 관심을 갖고 연구에 임했다.

『전쟁과 전라도 지역사』는 14세기 고려 말기 왜구 침략에서부터

17세기 조선 중기의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전라도 지역에 남긴 흔적을 • 왜구와 지역사회의 변화 • 왜란과 지역민의 대응 • 호란과 지역민의 대응 등 3개의 장으로 구분해 엮어냈다. 김 교수는 “이번 책에서는 전라도의 향화촌과 향조촌을 발굴하고 제시했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본서가 전라도의 귀한 문화 자원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김 교수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원 사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조선 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연표로 보는 한국역사』, 『조선 후기 경제사 연구』, 『소쇄원 사람들』, 『전라도 역사이야기』, 『대기근, 조선을 뒤덮다』 등이 있다.

- <전남매일> 발췌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김덕진 이사(광주교육대 교수), 『전쟁과 전라도 지역사』 출간
- 송진희 이사(호남대 예술대 학장), 문체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선정
- 이동순 이사(조선대 교수), 『영광문학총서』 출간
- 김선출 회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임명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박선정 운영위원장 별세
- 윤장현 전 이사 부친상
- 윤봉란 회원 모친상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 김병균
- 안태선
- 양금숙(공무원)
- 유광종
- 유우상(전남대 교수)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김 성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정희 시인

정광민 건축사사무소 서로 대표

정현애 오월어머니집 관장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사>

강동완 조선대 총장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영주 (주)광주전남CT협회 회장

김하림 조선대 부총장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선현주 (주)선앤김메디팜 대표이사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양혜령 치과의사

오건규 화가

이동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감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차일현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직무대행>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운영위원>

강성욱 전 광주컨벤션뷰로 사무처장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봉석 조선대 교수, 소소미술관장

김성수 SDC Korea 대표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김혜영 (사)광주관광발전연구소 이사장

박신영 소설가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윤현석 (주)컬처네트워크 대표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지CS 대표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주 흥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이동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기획위원>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원중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연구실장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함께하는 사람들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이항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김원중 연구실장
김민정 사업팀장(육아휴직)
이지은 총무간사
박청하 청년인턴
최진실 청년인턴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김 성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부회장>

오형근 일곡양지요양병원 대표원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목포지회장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이사
김경옥 약사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옥렬 다큐디자인 대표
김용혁 (주)H이 대표이사
이성일 전 호남매일신문 사장
정병수 남부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천형욱 변호사
황재익 오스메딕 대표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정희 시인

<편집위원>

김향득 사진작가
박신영 소설가
박청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청년인턴

초대합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18 회원 한마당” 믿어야~놀자!

#풍성한_먹거리에_볼거리도_만점 #푸짐한_경품추첨>_< #의사와_약사_동행

7.14 (토)_신안 지도/증도
맛있는 식사비 : 3만원

*자세한 내용은 웹 뉴스레터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편집후기

조금은 진부(?)해 보일까? 새정부 문화정책과 민선7기 문화정책 제안을 특집기획으로 실었다. 문화비전 2030에 담긴 정책 구상의 내용과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10대 핵심 정책 제안을 통해 목록화 시켜 보았다. 지방선거문화정책연대 같은 모임도 결국은 사람을 향하는 문화비전과 정책 방향의 제시지만 그것들을 틀 속에 다시 가두어 똑같은 판단을 만드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화는 좋은 사회를 향해야 한다는 생각.

소설가 서용좌 교수의 인터뷰와 기획연재 식영정, 전시회 스케치, 세계청년축제 개최와 광주시민총회, 공연 속으로, 책을 말하다 등 문화 예술계의 유연성(?)있는 읽을거리도 담아 보았다. 평범해 보이지만 그 분야에 대한 겸허한 이해는 공감을 얻을 수 있겠다. 직관적 진실이 지혜다. 우리는 주변의 가치에 대한 감각을 기르며 업그레이드 된다. 한 달에 한번은 전시회와 공연장과 새 책을 만나는 기분 좋은 일상을 지금 시작하고 싶다.

바쁜 시간 쪼개어 『창』에 귀한 원고 주신 필자님, 재단의 새 식구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